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020-10

<http://www.mosf.go.kr>

경제  
영성  
기초  
3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상징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CONTENTS**

# 01

**제1부**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	7
제2장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	21

# 02

**제2부**  
2015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15년도 나라살림 종합 .....	33
1. 재정운용 여건 .....	35
2. 세입 규모 .....	36
3. 지출 규모 .....	43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47
제2장 재정운용 방향 .....	51
1. 자원배분 방향 .....	53
2. 중점 추진과제 .....	60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	100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	101
1. R&D 분야 .....	103
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109
3. SOC 분야 .....	117
4. 농림·수산·식품 분야 .....	129
5. 보건·복지 분야 .....	138
6. 일자리 분야 .....	152

7. 교육 분야	159
8. 문화·체육·관광 분야	167
9. 환경 분야	177
10. 국방 분야	185
11. 외교·통일 분야	191
12. 공공질서·안전 분야	197

## 03

### 제3부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15년도 예산	211
1. 2015년도 예산총칙	213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218
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252
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254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260
6.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261
제2장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63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265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267
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268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272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77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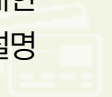


##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제1장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 제2장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www.mosf.go.kr](http://www.mosf.go.kr)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제1장

#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한은이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운용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형편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듯이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 개혁 노력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개 핵심과제들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국회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선,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하여 14조 6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 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하여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공부문 개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해 적자를 줄여 갈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천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서 부채를 줄여 갈 것입니다.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하여 과잉부분은 적극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 원으로 금년대비 8.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꼭 필요한 급여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개별급여로 바뀌게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금년보다 24만가구가 더 많은 97만가구로 늘리고 임대료도 연간 24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50% 늘어난 1.1조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복지예산 증액은 국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꼭 필요

합니다. 부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협조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복지수급자 선정부터 서비스 공급,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시 일벌백계 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창조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 신설법인수가 역대 최고인 4만개를 돌파하고, 등록 엔젤투자자가 2012년말 대비 150%가 늘어났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벤처 생태계에 새로운 물결이 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9개 나라 중 역대 최고 순위인 5위를 차지하였고, G20국가 중에서는 1위, OECD국가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세계의 기업들이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창업분야는 34위에서 17위로 상당한 순위 상승을 기록해서 그간 창조경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글로벌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발판을 확실히 굳혀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렵게 키운 창조경제의 불씨가 창의와 혁신의 불꽃이 되어 우리경제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대구와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나하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맞춤형 창조경제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 지역은 출연연에서 개발한 풍부한 기술이 사업화되도록 하고, 세종지역은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 등을 통해 새로운 농업가치를 창출하는 ‘창조마을’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대구 지역은 섬유·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이 ICT와 융합하여 첨단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시제품 제작, 법률·컨설팅 서비스 등을 종합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밸리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하여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개발, 창업, 보육,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정부는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8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R&D 투자의 효율화, 내실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지원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구소 등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수출애로 해소 노력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 금년 9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33.7%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선정, 금년보다 150% 늘린 2,500억의 자금을 투입하여 성장 유망분야 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망확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160%가 늘어난 73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3천억원의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속에서 우리의 주력 제조업들이 시장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 3.0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성장하여야 합니다. 우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그간 수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를 통해 현장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 결과 현재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정보를 낱알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년 들어 1만 5천 건이 넘는 규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9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렸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육아기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금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에 컨설팅서비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 의료·

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300억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조성하고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공공기관 관광정보 공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창조적 관광기업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펀드에 금년보다 50% 늘어난 1,200억원을 지원하고, 콘텐츠코리아랩, 게임개발센터, 스토리창작센터를 추가 확대하는 등 초기 창업과 창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막힌 일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의 취약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 분야였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특히, 돈이 없는 창업자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환경입니다.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어야

자금조달 분야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가격 급증기에 도입된 제도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1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빠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잘 아시듯이 서비스산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당면과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낙후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R&D,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바빠 개정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합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일으킨 저력과 강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 국민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우리는 대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대도약으로 다시 한 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대통령 박근혜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제2장

#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난 4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이후, 약 5개월간의 예산 편성 작업을 마치고 9월 22일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경제 재도약’과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구조개혁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며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근 우리경제 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근 경제여건

지난 3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9% 성장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세월호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미약하고, 대내외 불안 요인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1.1% 늘어났지만, 여전히 2분기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도 글로벌 경기 부진과 엔화 약세 등으로 전기대비 2.6% 감소했습니다. 투자심리도 덩달아 움츠러 들면서 기업투자는 전기대비 0.8% 줄었습니다.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1%대의 저물가로 인한 경상지표 둔화도 기업 수익성과 세수확보, 경제심리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경기변동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들이 표면화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이고 심리도 때가 있습니다. 화롯불도 화기(火氣)가 남아 있을 때 숯을 넣어야 합니다.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될 거라는 심리가 경제 전반에 확산된다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지갑을 닫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발 앞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모두가 하나 되어 다시 한번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시점입니다.

##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었습니다.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수립한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와 기준금리 인하,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 노력 등에 이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당초 계획보다 8조원 규모를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기부양 추정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 보다는 경기회복이 우선입니다.

최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책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U 회원국 역시 경기회복세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그간의 긴축재정 기조를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건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재정여건은 아직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GDP대비 국가채무는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균형재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우리 스스로 손발을 뭉뚱 묶어 둔다면, 우리는 결국 경제활력제고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습니다.

## 중점 투자방향①: 내수 활성화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예산을 14조 3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임금피크제와 같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직업훈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사업을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통합·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BTL 민간제안 허용 등 규제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7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가 새로운 기업과 젊은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창조와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주요 국가기간망의 조기완공과 노후 교량·터널 개선 등 안전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SOC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공약, 지역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등 3대 지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마련한 중앙-지방간 기능·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연평균 3.2조원을 지방으로 순이전할 예정입니다.

지방의 일시적인 재원부족에 대해서는 공자기금을 활용해 지방채 인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더 이상 부족한 국내수요를 이유로 투자를 미루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 시장 개척과 해외환자 및 관광객 유치 등 새로운 수요 창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중점 투자방향②: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

이러한 내수활성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가 자생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 성과가시화를 위해 올해보다 17.1% 증가한 8조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교밸리 입주기업 전용 R&D 자금과 펀드를 신설해 판교밸리를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단순한 창업지원 공간이 아닌 ‘제2벤처 붐’의 시발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4조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 경험을 할 수 있는 ‘창업 인턴제’를 신설해 청년들에게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기술유망 중소기업 및 고용창출력이 높은 가젤형 기업을 각각 500개 선정해 창업 및 수출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성실한 창업 실패자에게는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 자금’을 신설해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R&D 투자도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R&D 연구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 연구자가 한곳에 모여 대형 연구를 추진하는 ‘프로젝트형 융합연구단’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R&D 성과가 조기에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개발이 완료된 ICT 기술을 기존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

로젝트'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FTA, 쌀 관세화 등을 계기로 우리 농어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버섯, 유자차 등을 제2의 파프리카로 양성하는 등 우리 농수산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 관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수입보장보험 제도 도입, 농업 생산의 조직화·규모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중점 투자방향③: 서민생활 안정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의 괴리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보장될 때, 생계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때, 국민들은 비로소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560만 자영업자, 600만 비정규직의 경영과 고용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대 고금리 대출을 7%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해 1만 4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평균 500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정리, 취업지원, 채무조정을 한번에 지원해주는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을 신설해 임금근로자로의 전직 등 구조조정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은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으로 구분해 개성과 특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주차여건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저임금·위기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실업크레딧 제도, 중소기업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 등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지출의 30% 이상인 116조원을 복지분야에 투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교육, 주거, 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를 도모했습니다.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 통장의 가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르신, 어린이를 위한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해 96만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연료 구입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예산을 1,013억원으로 확대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체국 집배원, 야쿠르트 아줌마 등 우리 주변의 친숙한 이웃들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중점 투자방향④: 안전사회 구현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 우리 국민들을 슬픔에 빠지게 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안전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예산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분야에 내년도 예산안 주요 분야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9.1% 증가한 14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후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과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곧바로 보수·보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다리차와 같은 소방장비 확충은 원칙적으로 지방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소방, 군 등 각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던 재난현장 통신체계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일원화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군대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성·인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병사 봉급을 15% 인상해 장병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한편, GOP부대에 신형 방탄복 보급과 CCTV설치 등을 통해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능력 확보를 위해 이지스함과 차기 전투기 도입 등 핵심 전력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방 R&D 규모를 국방비의 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방산물품의 조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방산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와 민생에는 여·야가, 국회와 정부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하루 빨리 처리되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해입니다.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는 선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함께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우리경제 재도약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 규제완화 등 잘 짜여진 거시·미시 정책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비로소  
기업이 투자하고, 가계의 지갑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마련된 정책들의 성과가 하루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정부도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 경 환**



# 02



## 2015년도 나라살림



###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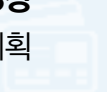
2015년도 나라살림 종합

### 제2장

재정운용 방향

###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www.mosf.go.kr](http://www.mosf.go.kr)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제1장

2015년도 나라살림 종합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01 재정운용 여건



금년도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 심화, 유로존·일본 등의 구조개혁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연간 %)

구 분	세 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
2014년	3.3	1.8	2.2	0.8	0.9	4.4	7.4	5.6
2015년	3.8	2.3	3.1	1.3	0.8	5.0	7.1	6.4

자료 : IMF(2014년 10월)

우리 경제는 성장·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금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 유가하락 등 대외여건 개선과 재정지출 확대,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효과 등으로 연간 3.8%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 가계부채 부담,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저하,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비효율성 등은 향후 경기 흐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득여건 개선, 투자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표 1-2] 2015년 경제 전망

구 분	2013년	2014년 <sup>o</sup>	2015년 <sup>e</sup>
경제성장률(%)	3.0	3.4	3.8
경상수지(억달러)	811	890	820
소비자물가(%)	1.3	1.3	2.0

자료 : 2015년 경제전망(2014년 12월)

# 02 세입 규모

## 2-1. 총수입 : 2014년 예산 대비 3.5% 증가한 382.4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은 2014년 예산보다 3.5% 증가한 382.4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14년 예산 대비 2.1% 증가한 248.8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14년 예산 대비 2.2% 증가한 221.1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24.0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4.7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4년 대비 6.4% 증가한 133.6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2015년 총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총 수 입	369.3	382.4	3.5
■ 예산	243.7	248.8	2.1
(국 세)	(216.5)	(221.1)	(2.2)
– 일반회계	219.1	224.0	2.3
– 특별회계	24.6	24.7	0.5
■ 기금	125.6	133.6	6.4
(사회보장성기금) <sup>1)</sup>	(69.8)	(74.5)	(6.7)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참고 ▶ 총수입이란?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3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4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 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를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 2-2. 예산수입 : 2014년 예산 대비 2.1% 증가한 248.8조원

예산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일반회계 세입 : 2014년 예산 대비 2.3% 증가한 224.0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15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4년 예산(209.3조원) 대비 2.2% 증가한 213.9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4년 예산(9.9조원) 대비 3.3% 증가한 10.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4년 예산 대비 2.2% 증가한 213.9조원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실적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14년 예산 대비 2.7% 증가한 184.5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과 그 외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세외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5년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은 기업은행 주식 매각 계획 이행에 따라 2014년 예산 대비  $\Delta 0.2$ 조원 감소한 0.4조원으로 예상된다. 경상세외수입은 국립대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전환됨에 따라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이 1.3조원 증가하였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의 세입편입액이  $\Delta 0.9$ 조원 감소하여 2014년 예산(9.2조원) 대비 5.7% 증가한 9.7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15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합 계(Ⅰ + Ⅱ)	219.1	224.0	2.3
■ 국세(Ⅰ)	209.3	213.9	2.2
내국세 <sup>1)</sup>	179.6	184.5	2.7
관 세	10.6	9.9	△6.3
교통·에너지·환경세	13.5	13.5	△0.1
교육세	4.5	4.7	6.4
종합부동산세	1.1	1.3	12.5
■ 세외수입(Ⅱ)	9.9	10.2	3.3
주식매각수입	0.6	0.4	△31.5
경상세외수입	9.2	9.7	5.7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 ▶ 특별회계 세입 : 2014년 예산 대비 0.5% 증가한 24.7조원

2015년 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 예산(24.6조원) 대비 0.5% 증가한 24.7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용자원금 회수·부담금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된다. 2015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2014년 예산 대비 1.0% 증가한 7.3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세입은 2014년 예산 대비 0.2% 증가한 17.4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15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합 계(Ⅰ + Ⅱ)	24.6	24.7	0.5
국 세(Ⅰ) <sup>1)</sup>	7.2	7.3	1.0
자체세입(Ⅱ) <sup>2)</sup>	17.4	17.4	0.2

1) 주세·농어촌특별세 /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용자원금 회수, 수수료 등

**참고 ▶ 2014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 **경제활성화**

- 근로소득 증대세제 · 배당소득 증대세제 ·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투자 · 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중소 ·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민생안정**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서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서민이용 물품 · 용역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
- 농 · 어업용 기지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등 농 · 어민 지원을 강화
-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및 안전 ·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 **공평과세**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등 비과세 ·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등 역외탈세 방지 강화 및 해외 오픈 마켓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등 신규세원을 발굴

## 2-3. 기금수입 : 2014년 대비 6.4% 증가한 133.6조원

2015년 기금수입은 2014년 대비 6.4% 증가한 133.6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6.7% 증가한 55.4조원, 용자원금 회수는 6.6% 증가한 24.8조원, 이자 등 기타수입은 5.9% 증가한 5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용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2014년 대비 6.7% 증가한 55.4조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회수하는 용자원금 회수규모는 2014년 대비 6.6% 증가한 24.8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14년 대비 5.9% 증가한 5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2015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합 계(I + II + III)	125.6	133.6	6.4
사회보장기여금(I)	52.0	55.4	6.7
용자원금 회수(II)	23.3	24.8	6.6
이자수입 등 기타(III)	50.3	53.4	5.9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원금 회수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2014년 대비 8.4% 증가한 39.9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6.8% 증가한 88.3조원, 계정성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11.5% 감소한 5.4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2015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합 계(55개)	125.6	133.6	6.4
사업성 기금(45개)	36.8	39.9	8.4
사회보험성 기금(6개) <sup>1)</sup>	82.7	88.3	6.8
계정성 기금(4개) <sup>2)</sup>	6.1	5.4	△11.5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2)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로 국회에서 확정된 총 64개 기금운용계획상의 기금수입(기금운용규모)은 504.7조 원이나 통합재정 관점의 총수입은 133.6조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 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 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

둘째, 금융성기금 및 외평기금은 순수 재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 하고, 55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총수입으로 본다는 것이다.

## 03 지출 규모



### 3-1. 총지출 규모 : 2014년 예산 대비 5.5% 증가한 375.4조원

2015년도 총지출은 375.4조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5.5% 증가한 규모이다.

2015년 총지출은 2014년 예산 대비 5.5% 증가한 375.4조원이다.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예산지출은 260.1조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3.7%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증가한 208.7조원, 특별회계는 4.5% 증가한 51.4조원이다.

기금지출은 사회보험성기금 급여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2014년 예산 대비 9.8% 증가한 115.3조원 수준이다.

[표 3-1] 2015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총 지 출	355.8	375.4	5.5
■ 예 산	250.8	260.1	3.7
일반회계	201.6	208.7	3.5
특별회계(18개)	49.2	51.4	4.5
■ 기 금	105.0	115.3	9.8

**참고 ▶ 총지출 규모란?**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text{통합재정규모} = \text{경상지출} + \text{자본지출} + \text{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 3-2. 예산지출 규모 : 2014년 예산 대비 3.7% 증가한 260.1조원

2015년 예산지출 규모는 2014년 예산 대비 3.7% 증가한 260.1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 증가한 208.7조원, 특별회계는 4.5% 증가한 51.4조원이다.

일반회계는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 활력 제고와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지원하여 2014년 예산 대비 3.5% 증가한 208.7조원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예산 대비 4.5% 증가한 51.4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간 및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14년 예산 대비 지출증가율은 4.2%이다.

[표 3-2] 2015년 예산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 예산 지출	250.8	260.1	3.7
일반회계	201.6	208.7	3.5
특별회계	49.2	51.4	4.5
■ 예산 순계	274.7	286.3	4.2

### 3-3. 기금지출 규모 : 2014년 대비 9.8% 증가한 115.3조원

2015년 기금지출 규모는 2014년 대비 9.8% 증가한 115.3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 지출은 10.8% 증가한 34.1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으로 2014년 대비 11.6% 증가한 99.6조원이고, 이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2014년 보다 9.0% 증가한 51.4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14년 대비 2.6% 증가한 1.5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14년 대비 △1.0% 감소한 14.2조원이다.

[표 3-3] 2015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합 계(55개) (사회보장지출 <sup>1)</sup> )	105.0 (30.8)	115.3 (34.1)	9.8 (10.8)
■ 사업비	89.2	99.6	11.6
사업성 기금(45개)	39.2	42.2	7.4
사회보험성 기금(6개) <sup>2)</sup>	47.2	51.4	9.0
계정성 기금(4개) <sup>3)</sup>	2.8	6.0	115.4
■ 기금운영비	1.4	1.5	2.6
■ 차입금이자상환	14.4	14.2	△1.0

1)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양곡증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15년 통합재정수지는 7.0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3.4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15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4% 수준(7.0조원) 흑자이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1%(△33.4조원) 적자로 예상된다.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기울여 2018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1.0%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표 4-1] 재정수지

(단위 : 조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 통합재정수지(I)	13.5	7.0	△6.5
(GDP 대비, %, %p)	(0.9)	(0.4)	(△0.5)
사회보장성기금 수지(II)	39.0	40.4	1.4
■ 관리재정수지(I - II)	△25.5	△33.4	△7.9
(GDP 대비, %, %p)	(△1.7)	(△2.1)	(△0.4)

###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장래 연금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 4-2. 국가채무

2015년 국가채무는 2014년 전망치인 527.0조원(GDP 대비 35.1%) 보다 43.0조원 증가한 569.9조원(GDP 대비 35.7%)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국채 증가(34.2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증가(13.0조원) 등에 기인한다.

2015년 국가채무 전망치 569.9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5.3% 수준인 315.1조원이며, 나머지 44.7% 수준인 254.8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용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15년 이후 증가폭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구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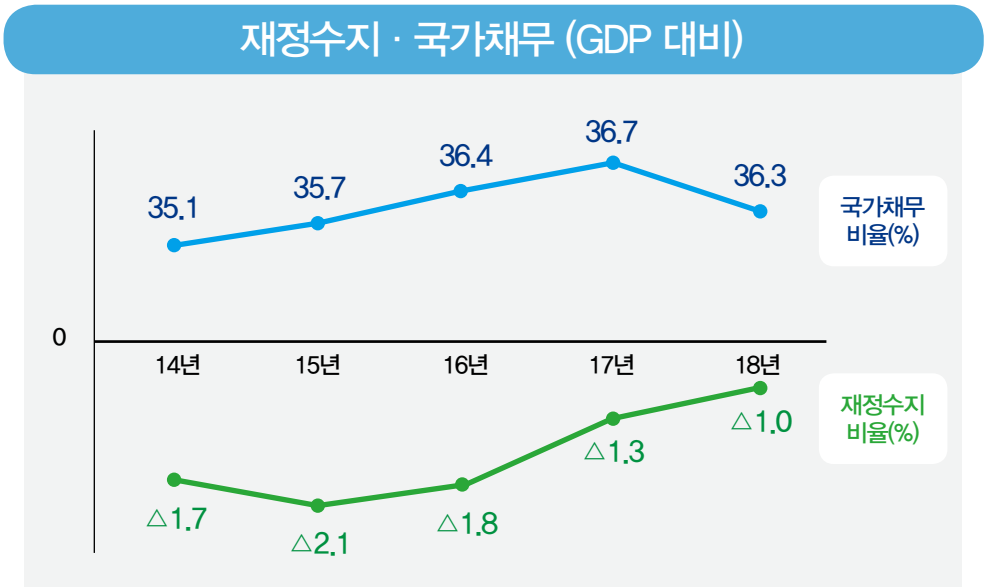
국민주택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황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년 결 산	2014년 전 망	2015년 예 산
■ 국가채무	489.8	527.0	569.9
(GDP대비, %)	(34.3)	(35.1)	(35.7)
① 적자성 채무	253.1	282.7	315.1
일반회계 적자국채	172.9	200.6	234.8
(순 증)	(24.3)	(27.7)	(34.2)
공적자금 상환기금	46.9	47.8	48.5
지방정부순채무	25.7	27.4	25.5
② 금융성 채무	236.7	244.3	254.8
외평기금·채권	171.0	186.2	199.2
주택기금·채권	51.3	49.1	51.0
공자기금 융자계정	5.2	3.3	1.9

201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2014년 전망 35.1%에 비해 상승하나,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에 따라 2018년에는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제2장

# 재정운용 방향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01

## 재원배분 방향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재정여력을 기반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빠르고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교과서적인 경기회복”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국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저물가로 인해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나라살림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내용면에서 금년 예산은 경제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① 소비·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②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③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④ 소상공인·비정규직 자생력 강화, ⑤ 생계비 부담 완화 등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등 5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 1-1. 소비·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의 투자와 수출 촉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13.2조원에서 14.3조원으로 1.1조원(7.6% 증) 확대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7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각

부처에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직업훈련 사업을 고용부 중심으로 통합·표준화 하는 등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안을 두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였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270억원),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등 산업단지 투자 환경 개선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하여 융자,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증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050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망확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공약, 지역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등 3대 지역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SOC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공약 투자규모를 3.5조원에서 3.9조원으로, 지역특화프로젝트는 0.25조원에서 0.38조원으로, 행복생활권은 3.0조원에서 3.3조원으로 각각 늘렸다. 전체적인 SOC 투자 규모를 23.7조원에서 24.8조원으로 1.1조원 확대(4.7% 증)하여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완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채 이자와 대체사업에 대한 소요 0.5조원을 지방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 1-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우리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 R&D,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 지원하였다.

창조경제 예산을 7.1조원에서 8.3조원으로 1.2조원 확대(17.1% 증)하여 창조경제 기반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설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창조경제의 핵심 허브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선도대학 확대,

창업인턴제 신설 등 창업저변을 확대하고, 엔젤투자 펀드 조성(15년 2,000억원),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14~17년간 2,000억원)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규모를 17.8조원에서 18.9조원으로 1.1조원(6.4% 증) 늘렸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 융복합 소재 등 13대 핵심 성장동력 분야에 1.1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해 출연연구기관간 분절적으로 수행하던 융합연구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융합연구단체도를 도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업화 바우처 도입(신규 10억원), 기술은행 고도화(20억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중개자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의료, 관광 등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300억원), 관광펀드(130억원), 콘텐츠 펀드(1,100억원) 등을 조성하여 민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G2G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해외 현지 환자관리센터 구축도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농어업,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농어업 6차산업 집적화 단지를 6개소로 확대하고, 뿌리기업 특화단지도 2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 1-3.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국민들의 안전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안전을 위한 투자도 집중적으로 확대하였다.

안전예산에 대한 분류 체계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안전예산 투자 규모를 12.4→14.7조원으로 2.3조원(19.1% 증) 확대하였다. 재난예방 및 사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비확충, 안전시스템 및 위험 SOC 개선 등에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신규로 470억원 투자하고, 안전투자 펀드 조성(14~17년간 총 5조원, 500억원 출자)을 통해 안전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안

전점점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0.3조원 규모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자체 사무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로 환원·지원하고, 학대아동 보호쉼터를 36개소에서 58개소로 확대하였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늘리고(15.7→17만대) 학생보호인력을 확충하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40개소 추가 확충(150→190개소)하고, 식중독균 통합 DB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13~'17년간 경찰 인력 2만명 확충 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사건·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병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상병, 월 13.5→15.5만원) 급식비 단가를 5% 인상할 계획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 Chain, KAMD 등 핵심전력을 적기 확보하고 접적지역 전투력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주민 동질성 회복 등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을 위해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드림센터 건립, 정착금 지원 등 예산도 확대하였다.

#### 1-4. 소상공인·비정규직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였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하여 약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500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창업에서 성장 재도전 등 단계별 맞춤형 지

원도 강화하였다.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89억원에서 50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도 51개소에서 84개소로 확대하였다.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도 신설하였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인상시 인상분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사내복지기금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도산·실업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신설하였고,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의 체당금을 선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을 신설하였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착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과 운용수수료를 보조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무료취업 알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의 지원 요건을 월임금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원 인원을 18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규모를 1,004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소득조건을 폐지하였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1-5. 생계비 부담 완화 등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복지 예산규모는 총지출의 30.8%인 115.7조원으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의 기본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50억원)하고,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A형 간염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료를 3% 인상하고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도 경감하고, 행복주택 건설도 2.6만호에서 3.8만호(승인기준)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464만명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의 본격 시행을 지원하고 어르신 독감 예방 무료접종기관을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6.5만개의 경로당에도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5.7월부터 통합급여 방식이 개별급여로 전환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부양비 부과기준도 완화될 계획이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저소득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을 161만명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신설되어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 96만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 대상도 2만가구로 2배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수당(성인)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1.5만개로 확대하였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8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90만원/ha에서 100만원/ha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구입자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도 1~2%p 인하하였다.

촉촉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월 소득 196~245만원에서 월 소득 309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였다.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야쿠르트 이준마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틈새 빈곤층 발굴을 위한 사업도 확대하였다. 또한 지자체 복지공무원 확충 계획('14~'17년간 6천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2015년도 예산 개요

경제 · 안전 · 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

### 기본 방향

- ▶ 긴축지향의 축소균형 →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 전환
- ▶ 우리경제의 당면과제 해소를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
- ▶ 재정개혁을 통한 국민신뢰 ·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

### 투자 중점

#### 경제 살리기

-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촉진 등 경기회복 견인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 안전 만들기

-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확충
- 4대 사회약 근절노력 지속
- 선진병영문화 정착 및 적극 방위능력 확보

#### 희망 나누기

- 소상공인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 · 복지 완성
- 긴급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 재정 개혁

#### 재정지출 효율화

- 재정개혁 지속
- 유사중복 통폐합

#### 국민 눈높이 예산

- 소통채널 확대
- 재정정보 공개

#### 재정제도 선진화

- 예산외 자금 흡수
- 민간투자 활성화

## 02 중점 추진과제



### 1. 소비·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1-1. 맞춤형 일자리 창출
- 1-2. 기업 투자여건 개선
- 1-3.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 지원
- 1-4. 지역경제 활성화

###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2-1.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 2-2. 전략적 R&D 투자 및 성과 창출
- 2-3. 미래 먹거리 창출

### 3.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 3-1.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
- 3-2.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3-3.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적극 방위능력 확충
- 3-4. 평화통일 기반구축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4. 소상공인·비정규직 자생력 강화

- 4-1.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 4-2.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 5. 생계비 부담 완화 등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 5-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 5-2.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 5-3.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 5-4.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강화

## 1. 소비·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1-1. 맞춤형 일자리 창출

#### ①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 13.2→14.3조원

##### ▶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지원 강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는 내년도 고용 여건 및 임시적 일자리라는 한계점을 감안하여, 2014년 수준인 66.6만개를 지원한다. 다만,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는 확대(19.9→20.7만명)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였다.

##### ▶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 예산 확대

중장기적인 고용효과가 큰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예산을 확대하였다.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 예산을 대폭 확대(1.6→1.8조원)하였으며, 희망리본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의 통합을 통해 고용서비스 예산도 확대(0.5→0.6조원)하였다.

#### ② 대상별 양질의 일자리 지원 강화

##### ▶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청년층이 주로 참여하는 취업성공패키지(Ⅱ)(12→15만명) 및 해외일자리 지원(1.7→1.9만명)을 확대하고,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일-학습병행 지원도 대폭 확대(기업 수 1→3천개) 하였다. 특히,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최대 3년)하는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 ▶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여성친화적인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0.5→0.9만명)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0.7→0.8조원)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 ▶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0.7→0.8만명)하고 맞춤형 교육 강화(1→2천명)한다. 또한, 중장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신규로 도입(신규 20억원, 2천명)한다. 아울러,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확대(0.3→0.6만명)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한편,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급도 확대하였다.

## ③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그동안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중복시행함에 따라 예산 지원금 쇼핑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 사업을 통합·확대(14.2→15만명)하여 기초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용-복지통합센터 확대(누적 10→32개) 등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 통합 효과 ]

	현 행	통합 후
국가의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민간기관 위탁 수행</li> <li>- 민간위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가기관(고용센터) 직접수행</li> <li>- 국가직접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절감</li> </ul>
참여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사업이나 참여자 지원수준 차등</li> <li>* (희망리본) 최대 400, (취성패) 최대 665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통합에 따른 참여자 지원수준 상향 평준화</li> <li>* 최대 665만원</li> </ul>

▶ **직업훈련 효율화**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예산과 심사·평가 기능을 고용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함으로써 직업훈련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10개 부처가 수행중인 200억원 규모의 31개 직업훈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통합한다.

▶ **실업급여 제도 개편**

저임금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을 인상(4→5만원)하는 한편, 실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일 하한액은 인하(최저임금의 90→80%)할 계획이다. 다만, 구직급여의 생계보장 기능 약화 방지를 위해 2014년 일일 하한액인 37,512원 수준은 보장한다.

▶ **고용안정지원 강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220억원, 0.8만명),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0.7→1.7만명)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 1-2. 기업 투자여건 개선

### 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요인 해소

####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여건 개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한다(92→97조원). 이와 더불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총 3조원) 및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총 1조원)의 신규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이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납입한 공제금 및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이 한 기업에 오랫동안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②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 ▶ 노후산단의 혁신산단화를 통해 기업과 젊은 층의 유입 유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함께 노후산단 재정비 사업(4→8개) 등을 추진하여 산단 기반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한다. '산단환경 개선펀드' 조성(270억원)을 통해 민·관 합동의 산단 리모델링 모델을 새로이 만들고 산단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혁신지원센터 신규 건립(3개소)도 지원한다.

또한 산단내 대학 및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산학융합지구를 확대(8→10개)할 계획이다.

#### ▶ 경제특별구역 기반시설 확충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

구역의 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1-3.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 지원

#### ① 수출기업 육성

##### ▶ 수출기업화 지원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116→170억원)한다. 또한,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을 500개 선정하여 융자, 마케팅 등을 지원(신규 3,050억원)함으로써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 수출보증 보험 및 물류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를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에 공동물류센터(해외업체)를 지정하여 통관·보관·운송 과정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440→500개사)한다.

#### ② 새로운 수출시장·경로 개척

##### ▶ 온라인 수출 활성화

중소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에 제품을 등록·판매하는 온라인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30→45억원)한다.

##### ▶ 무역장벽 완화

FTA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136→168억원)을 강화한다.

### ▶ 글로벌 한국 알리기를 통한 수출여건 조성

해외문화원(28→31개), 세종학당(130→140개),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30→39개국)을 확대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간접적·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 1-4. 지역경제 활성화

### ① SOC 투자 확충 및 민간투자 촉진

#### ▶ SOC 투자 확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5년 SOC 투자규모를 2014년 23.7조원 대비 1.1조원 증가한 24.8조원으로 확대한다.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 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한다. 충주-제천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대전-대구 도심구간) 사업은 2015년에 완공된다. 호남선 KTX(광주-목포), 서해선 복선전철, 광주외곽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기간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은 신규 착수한다.

#### ▶ 시설 안전 및 유지보수 등 안전투자 확대

교량보강, 노후터널 개선 등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제고한다. 노후교량 및 터널, 선형 불량 등 위험구간을 집중 개선하여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선로·교량 개선을 확대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한다.

#### ▶ 재정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 촉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 보상비를 조기 지원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일산-삼성)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 ② 3대 지역사업 본격 추진

### ▶ 지역공약

2013년 7월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시도별 지역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계속 사업은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지역별로 필수 사업을 반영한다. 2015년 지역공약 지원규모는 2014년 3.5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한 3.9조원이다.

2015년 완료 가능한 10개 사업은 잔여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은 본격 추진토록 적극 지원한다.

### ▶ 지역특화프로젝트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자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15개 프로젝트를 지원(2,452→3,764억원)한다. 프로젝트는 해당 시·도의 발전비전,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향식으로 선정한다. 지자체가 기획, 입지지원 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 행복생활권

문화·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복생활권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민안전,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의료 등 지역 수요가 많고 삶의 질 개선효과가 높은 4대 분야 30개 핵심사업을 지속 지원(3.0→3.3조원)한다. 도시 달동네, 농촌 오지 등 낙후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등도 확대(650→1,200억원)한다.

### ③ 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지방 기업유치 및 육성 확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소재 기업의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1,026→1,258억원)한다. 더불어 지역 기반 세계적 기업(히든챔피언) 후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신규 추진(100억원)한다.

#### ▶ 주요 지역별 맞춤형 개발계획 지원

테마파크 등 폐광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217→323억원)하고 강원, 경기, 인천 등 15개 시군 접경권의 지역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진도지역 2단계 여객항 개발을 위한 항로준설을 추진하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관광객 감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 추모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 ④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

#### ▶ 지방재정 확충 지원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채 이자(333억원) 및 대체사업(4,73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대비해 지방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자기금을 통한 지방채 인수자금 3.3조원을 지원한다.

#### ▶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자체가 선호에 맞게 스스로 사업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3.6조원에서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태하천 복원 등 복지·환경 분야 9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총 포괄보조사업 수 25→34개)한다. 86개 사업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용도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2-1.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 ①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및 창조경제 기반 확산

##### ▶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2015년 10월 완공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센터에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빅데이터전략센터, 사물인터넷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하여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제품제작, 창업, 보육,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의 핵심 허브로 육성한다.

특히, 시제품제작소,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전용 R&D자금(100억원)과 펀드(100억원)도 신설한다.

##### ▶ 지역별 창조경제 기반 마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신규, 98억원)한다. 특히,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계한 1대1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상생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국민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에도 신규로 97.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구 KDI, KIET 부지인 홍릉 연구단지를 서울시와 협력하여 창조경제·문화와 글로벌 지식 공유·협력을 위한 복합단지로 조성(신규, 55억원)한다.

## ② 창업·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 창업단계: 창업 저변 확대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키워줄 수 있도록 초·중·고교 대상 창업교육을 확대(200→300개교)하고, 우수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추가로 설치(21→28개소)한다. 또한, 청년 인재들이 창업 전에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인턴제’ 사업(50억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 ▶ 성장단계: 창업 유망기업 육성

창업기업 등의 초기 투자자금 확충을 위해 펀드조성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청년 창업기업, 엔젤투자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벤처자금을 유치하여 해외상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500개를 선정, R&D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창조경제 선도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 ▶ 재기단계: 재도전 기회 확충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심리치유, 역량강화,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35억원)을 신설한다. 또한, 성실한 실패자에게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도 200억원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다.

## ③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

### ▶ 스마트챌린지 프로젝트 신규추진

개발이 완료된 ICT 기술을 상용화하여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에

38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일괄 생산방식에서 공정 자동조정 등을 통해 개별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지는 스마트 팩토리 등 신규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 ▶ 에너지, 의료, 정보화 분야 신산업·신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원간 융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접목시켜 새로운 에너지 공급모델을 구축하고 도서지역에 시범 적용(신규, 80억원)한다. 차세대 의료기기,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 출시도 지원(신규, 266억원)한다.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에 지원을 확대(132→311억원)한다.

## 2-2. 전략적 R&D 투자 및 성과 창출

### ① 핵심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 ▶ 13대 미래 성장동력 중점 투자

스마트 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능형 로봇 등 미래신산업,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 공공복지산업을 비롯한 9대 전략산업 및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등 4대 기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9,975→11,054억원)하여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 중소·중견기업 R&D 및 에너지 효율화 투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성장·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 기업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D 규모 대비 투자 비중을 2014년 16.7%에서 2015년 17.9%로 대폭 확대하였다.

## ② R&D 연구성과 극대화

### ▶ 융합연구 촉진

출연(연)간 분절적으로 수행하여 단순 협동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융합연구를 탈피하여 실질적인 융합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융합연구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201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개 연구단을 우선 출범시켰으며, 2015년까지 10개 연구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기술거래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발굴하여 상용화 R&D자금 지원을 통해 출연(연)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신규, 120억원)한다.

중소기업 등이 출연(연)·대학 등의 우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바우처(신규, 10억원)를 도입하고, 기술은행을 고도화(11→20억원)하여 기업의 기술중개자 활용을 촉진한다.

기술은행에 등록된 휴면기술 중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34→110억원)한다.

## 2-3. 미래 먹거리 창출

### 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 ▶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지원 확대

제약·의료기기·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G2G 환자의 국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치료 전·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현지 환자관리센터를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국내 임상시험기관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확충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을 접목한 관광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출자(130억원)하고,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관광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10억원)하여 민간의 창조 관광기업 창업·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컨벤션 개최 현장에 한국관광 홍보 체험관,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14억원)하는 등 의료·국제회의의 관련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268→286억원)한다.

### ▶ 창조경제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콘텐츠 분야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800→1,100억원)하고, 창의성·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콘텐츠 기업들은 완성보증 강화(20→50억원)를 통해 지원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기반한 콘텐츠 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도 별도 지원(100억원)한다.

콘텐츠 제작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인프라 지원을 위해 콘텐츠 관련 창작부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5→7개소) 및 게임개발센터(2→4개소)를 확충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창작자들이 스토리를 구상할 수 있는 스토리창작센터(2→7개)를 확대한다.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애니메이션, 만화,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직접 투자도 확대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강(453→565억원)하며, 그간 취약했던 미술시장 육성을 위해 미술품 거래정보 공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73억원)한다.

## ②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

### ▶ 농어업을 수출 등과 연계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우리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수출 전략화를 위해 제2파프리카(버섯, 유자차, 유제품 등 5개품목) 육성을 신규로 지원하고, 식품·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쌀 품질 제고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20→30개소)을 강화하는 등 농업 생산의 조직화·규모화도 지속 추진한다.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6차 산업 집적화 단지를 확대 조성(3→6개소)하고, 지역컨소시엄(10→20개소)구성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능동적이고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구축 및 귀농인의 집(70개소) 신규 지원 등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 ▶ 뿌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뿌리기업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12→20곳)하여 뿌리산업이 집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뿌리기업과 해외 수요기업간 매칭을(신규, 30억원) 통해 뿌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뿌리기업의 생산장비 및 공동활용시설(폐수처리장 등) 등을 지원하고, 제품·공정개선을 위한 R&D도 신규(50억원)로 도입하여 국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 섬유 및 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귀금속, 가구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신발 및 섬유 등 패션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또한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산업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3.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 3-1.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

#### ① 안전예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 안전예산 관리체계 개편

안전예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범위, 성질별 분류를 재정립하였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관련 사업을 모아 안전예산으로 분류하고, 성질별로도 7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성질별 분류는 첫째,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둘째, 위험시설 기능강화, 셋째, 교육·훈련, 넷째, 안전 R&D, 다섯째, 안전기능 보완·지원, 여섯째, 재난예방시설 구축·보완, 일곱째, 예비비로 구성된다.

#####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및 특교세 교부권한 부여

국민안전처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 및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안전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2015년 기준으로 총 3,141억원이 확보되었다.

#### ② 안전예산 투자규모 대폭 확대

##### ▶ 학교시설 등 전면적인 안전 점검

학교와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 이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에 착수한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해 재해대책비의 규모를 현재 특별교부금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5년간 2조원의 교육교부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9월 예비비 192억원 지원을 통해 전면적인 시

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는 도로·교량·항만·노후 저수지·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보수·보강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은 2014년 1.4조원에서 2015년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2015년까지 완료하여 화재피해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 ▶ 안전 장비 확충 및 SOC 시설의 위험요인 제거

재난 예방과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 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사다리차, 화학차 등 소방차,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자체 소방장비에 대해 국고를 1,000억원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해경·소방·군 등 8개분야 321개 기관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계획(2015년 470억원)이다. 노후도로, 교량, 철도 등 SOC 시설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선형불량 위험도로 개선 및 노후 철도시설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관련 예산이 2014년 1.4조원에서 2015년 2.1조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 안전 전문인력 확충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재난 관리 및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시설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375명 증원한다. 또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재난의료 지원예산을 22억원에서 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는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되고, 응급의료헬기도 5대에서 6대로 확대하였다.

## ③ 민간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산업 육성

### ▶ 안전교육 강화 및 민간의 안전책임 강화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민간의 안전의식 고취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연 45회에서 83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화재대피, 소화기 사용,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안전체험관을 신축('15년 13억원)하고, 안전 관련

종사자의 실전 교육을 위해 선원종합비상훈련장도 신축('15년 35억원)할 예정이다. 또한 풍수해 보험 및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안전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 안전산업 육성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안전 R&D에 대한 투자를 2014년 0.5조원에서 2015년 0.6조원으로 확대하고, 안전 관련 국산장비·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안전에 대한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로 안전산업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2014~2017년간 안전투자펀드를 5조원 조성('15년 500억원 출자)하여 산업화가 용이한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영역은 RTL/RTO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3-2.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①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지속

#### ▶ 성폭력 발생 억제 및 사후 관리 강화

성폭력 전담 수사반 운용을 지속 지원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관리를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2015년에 확대(26→38개팀) 운영하여 각종 정보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가정 폭력피해 여성 주거시설을 확대(194→234호)하고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전국 250개 경찰서에 신설하며, 학대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이양 사업인 아동보호전문기관

(56개소) 운영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 ▶ 학교폭력 억제 등 관리 강화

학교 정문, 후문, 기타 관리가 필요한 공간 등에 CCTV 설치를 확대(16→17만대)하고 배움터 지킴이(자원봉사자), 민간경비(교육청), 청원경찰(교육청), 학교보안관(지자체) 등 학생 보호인력을 확충(13,379→14,000명)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 ▶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확충(150→190개소)하고 식중독 대응을 위한 식중독균 통합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친환경 직불제 지원기간 확대(5→8년) 및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300→400억원) 등으로 건강한 식자재의 공급을 위해 농업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 ② 생활 위해요인 사전 차단

### ▶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투자

2013~2017년간 경찰·해경 인력 2만명을 확충 계획에 따라 2015년에는 경찰 3,760명을 확충하여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지속 설치하여 어린이를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 ▶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환경 오염원 사전 차단과 예방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하여 추진한다. 또한 하수관로 노후화에 의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신규 실시

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AI, 구제역 등 상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해 투자를 강화한다. 저수지 철새 관측시스템 구축, 위치 추적기 부착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방역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AI 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 신규 지원 등을 통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지킴이 확대(160→260명) 및 화학사고 사전위험 경보제(2,000개소) 신규 도입 등 산업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산재 취약 근로자의 직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센터를 확대(15→20개소)하고 질식사고 예방 종합관리체계 구축(2,500개소)을 지원한다.

### ▶ 건강위해 예방 지원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강화 등 흡연에 따른 건강피해 축소를 위해 금연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3-3.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적극 방위능력 확충

### ①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장병 안전·복지 향상

윤일병 사건, GOP 총기사고 등 군 생활중 사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선진 병영문화 조기정착 및 장병 안전·복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 **인성·인문교육 확대**

GOP 장병에 대한 맞춤형 인성교육(연 4회) 및 초급장교 리더십 교육 신규 실시, 병영 도서관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독서 코칭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인성·인문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 ▶ **병영생활 환경 개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51명 증원(246→297명),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CCTV 신규 설치 등 병사들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둔다. 아울러, 그간 신규투자가 제한되었던 해체·이전 예정부대의 노후 병영생활관, 화장실, 취사식당 등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고 일부 GOP부대와 탄약관리 부대 등을 대상으로 제조작업, 부대환경 관리 등 부대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시범 실시한다.

### ▶ **장병 인권 강화·복지 향상**

2015년에는 11개 모든 GOP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신형 방탄복과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보급하고 의무후송헬기 운용을 확대(3→6대)하여 장병 안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생활경비 지원 강화를 위해 병사월급은 전년대비 15% 인상, 장병 입맛과 건강을 배려할 수 있도록 급식비는 5% 인상 등 병영생활 전반의 근무여건을 향상하고, GOP 소초 내 실내헬스장과 농구장을 각각 신규 설치하여 장병 복지를 제고한다.

## ②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능력 확보**

### ▶ **Kill Chain·KAMD 등 대응능력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Kill Chain 및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강화하고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국방개혁 추진으로 확장된 작전지역을 원활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과 기동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을 제고하고 창끝부대(대대급) 전투력을 향상시킨다.

### ▶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지상 전력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전투함 및 전투기 확보 등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과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립한다. 또한 창조형 국방 R&D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을 확보하며, 방위산업 활성화 및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

## 3-4. 평화통일 기반구축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①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 평화통일기반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비정상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1.5조원 규모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3일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인도적 문제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 ② 글로벌 위상 제고

#### ▶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교역량 강화

북핵문제 진전,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보호, 공공외교 및 일자리 외교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전략동맹 등 주변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미래의 전략지역인 아프리카 등 자원개발의 신흥국 및 핵심중견국 협의체(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를 통해 외교관계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 ODA 지원 확대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최근 국제사회의 재난, 분쟁 등의 급증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해외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 진출 수요와 수원국 인프라 개발수요에 맞춘 대개도국 차관 사업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흥시장 확대에도 기여한다.

## 4. 소상공인 · 비정규직 자생력 강화

### 4-1. 소상공인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 ①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확대

#####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을 1.2 → 2.0조원으로 확대

2015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 기금 신설과 함께 지원규모도 1.2조원에서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구조도 소상공인의 성장단계(Life-Cycle)에 맞추어 개편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 존	개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li> <li>■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li> <li>■ 소상공인 조직화 · 공동화</li> <li>■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li> <li>■ 시장경영혁신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단계) 소상공인 창업 지원</li> <li>■ (성장단계) 소상공인 성장 지원</li> <li>■ (폐업단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li> <li>■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 지원</li> <li>■ (인프라)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보강</li> </ul>

##### ▶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지원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저리의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0.9→1.5조원)한다. 특히,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0.5조원)하여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춰줄 계획이다.

## ②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창업단계: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과잉진입-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교육-전담 멘토링-실전 창업체험-정책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사업을 신설(203억원)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할 계획이다.

### ▶ 성장단계: 협업·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공동장비 구매,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협업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슈퍼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배송체계를 구축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골목상권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 밀집지역 5곳에 공동판매장+공동창고+편의시설을 연계한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등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했던 30만 소공인에 대한 특화 지원도 확대한다.

### ▶ 재도전 단계: 임금근로자 전환 및 유망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발굴하여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상담·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연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업종전환 희망자에 대해서는 재기교육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여 유망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 ③ 개성과 특색을 살린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 ▶ 시장별 차별화·특성화, 청년상인 육성 등 맞춤형 지원 확대

2015년부터는 각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으로 구분하여 맞춤

형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에게는 무상으로 점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인근 대학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여 젊은 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장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 분	사업 내용	지원 목표	비 고
■ 골목형	시장별 1가지 이상의 특색이 있는 시장으로 육성(예: 청주 서문시장-삼겹살)	전체 전통시장의 60%('15년 70곳)	개소당 6억원
■ 문화관광형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	전체 전통시장의 15%('15년 32곳)	개소당 18억원
■ 글로벌명품형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인프라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관광명소로 육성	전국 10곳 내외 ('15년 5곳)	개소당 50억원

###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성 제고

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 주차장 건립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477→860억원)한다. 아울러, 학교 등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에서 주차장 개방시 시설관리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주차장 공유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 4-2.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 ① 생산성 향상 등 소득기반 확충

#### ▶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생산성 차이로 인한 실질임금 격차 완화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직업훈련을 확대(0.4→0.5조원, 6→8만명)하고, 지원단가를 인상(실비의 60→90%)한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채용연계형 직업

훈련을 확대(4.2→5.1만명)하고,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도 신규로 10곳을 설치한다. 아울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무료 취업 알선을 확대(1.9→16만명)하고 동절기 기능훈련도 강화(0.4→0.8만명)한다.

### ▶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판결만 있으면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지원제도를 신설(1.7만명)한다.

## ②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지원

### ▶ 정규직 취업 및 재고용 촉진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0.7→1.7만명)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여성을 출산후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상(첫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40, 80만원)한다.

### ▶ 정규직 전환 촉진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 및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신규 220억원, 8천명)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시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이 안정적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최대 220→300만원)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제조업 생산직·전기·전자·정보통신→전업종)한다.

## ③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규직과의 격차 완화

###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크레딧 신규 도입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월임금 135→140만원 미만)하고, 지원인원 확대(169→180만명)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3/4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로 신규로 도입한다.

### ▶ 퇴직연금 가입 지원 및 금융안정망 확충

은퇴 후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신규 도입(신규 27억원, 44만명)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주에 대해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자산운용 수수료(0.4%)의 50%를 재정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규모를 확대(819→1,004억원)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조건도 폐지한다.

##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

### ❶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제도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해소를 위해 임금인상시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8천명)
- ▶ (사내복지기금 지원사업) ①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②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지원금 1:1 매칭 지원

### ❷ 기업도산·실업시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제도

- ▶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실업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노후 생활안정 위해요인 제거(월 34만명)
- ▶ (소액체당금 지원) 기업도산 전이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까지 체당금 선지급(1.7만명)

### ❸ 중소기업·건설일용직 근로자 소득안정 지원제도

- ▶ (중기퇴직연금기금제) 중기 퇴직연금기금(15.7월 도입)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10%)을 지원(44만명)하고, 운용수수료(50%) 보조

\*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 ▶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알선)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전국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취업 알선(14만명)

※ 현재는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일용임금의 10%를 알선기관 수수료로 지급

## 5. 생계비 부담 완화 등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 5-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 ① 영유아

##### ▶ 출산 장려 지원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단가를 인상(180→190만원/회)하여 출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 등을 설치 확대(30→35개소)한다. 또한 어릴 때부터 결혼·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초·중등 인구교육을 확대(시범학교 7→12개소)한다.

##### ▶ 보육 서비스 질 개선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171개소 추가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90→110개소)한다. 일하는 여성 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30개소로 확대(85→230개)하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1,800→2,000개소)한다. 그리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품질 인증을 위한 평가를 의무화('15.10월) 하고, 연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발생시 임시로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대체교사도 확충(428→449명)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확대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예방접종대상 항목을 A형간염(평균 10만원/인)까지 포함한 총 14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로 만 12세 이하 약 600만 어린이가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65%이하)을 확대한다.

\* 예방접종 대상감염병(14종) :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 ② 학생

### ▶ 취약계층 학업 지원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급식,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200→250개)한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124개소 확대(3,989→4,113개소)한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초학습지원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도 전국 시군구로 확대(220→230개소) 한다.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54→200개소)한다.

### ▶ 교육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확대(3.7→3.9조원)로 국가장학생이 받는 연평균 장학금도 2012년 205만원에서 2015년 380만원으로 증액된다. 취업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유예하는 든든 학자금 대출대상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확대한다.

### ▶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 내 행복주택 건설을 확대(승인기준 2.6→3.8만호)한다. 또한 민간기숙사보다 20~30% 저렴한 행복 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6,200~7,000명)한다.

### ③ 중장년

#### ▶ 퇴직연금 가입 지원 강화 및 노후설계 지원 신설

은퇴후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신규 도입(신규 27억 원, 44만명)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주에 대해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자산운용 수수료(0.4%)의 50%를 재정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준비할 수 있도록 장년층 진입시점(만 50세)부터 생애설계 서비스 지원(신규 10억원)

#### ▶ 의료비 부담 완화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을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의사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별 30%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상급병실은 2014년 9월부터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한 후, 2015년까지 일반병상 비율을 현재 74%에서 83%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간병은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하여 2015년부터 건강보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일반간병인 고용시 약 7~8만원(1일)의 비용이 드는 반면 포괄간호병동 입원시 약 3,800~7,500원 추가 부담(종합병원 6인실 기준)만으로 포괄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지속 확대(준공 기준 9.0→12.0만호)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도심 내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매입 및 전세임대를 전년 계획 대비 1만호가 늘어난 5만호까지 공급하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원단가도 각각 500만원씩 인상(매입임대 90→95백만원, 전세임대 75→80백만원)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의 보장성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33%에서 43% 이하 가구까지 확대(가구

수 기준 73→97만)된다. 또한, 평균 월 지급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소득·가구원수·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을 전년 계획 대비 0.3조원 늘어난 7조원(이차보전 포함)까지 지원하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월세대출을 도입하여 호당 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 ④ 어르신

##### ▶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로 소득기반 확충

소득기반 취약한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부터 연간 시행됨에 따라 2015년 예산은 7.6조원(2014년 5.2조원 대비 2.4조원 증가)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수준이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14년 447만명에서 2015년 464만명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소비자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월 20만원에서 월 20.3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어르신의 추가적인 소득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4년 31만개에서 2.7만개 확대하여 2015년 33.7만개를 지원한다.

##### ▶ 의료비 부담 완화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2만원/인) 무료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병원(6,000개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실명예방을 위해 개안수술(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등)을 확대(2,440→5,000안) 지원한다. 또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상한 3만원/월)를 지속 지원하며, 2014년 7월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으로 2015년 약 5.3만명의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기반 및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등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2015년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구축을 완료하고,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운영지원을 확대(181→273개)함으로써 국민들의 평생 학습 접근성 향상과 참여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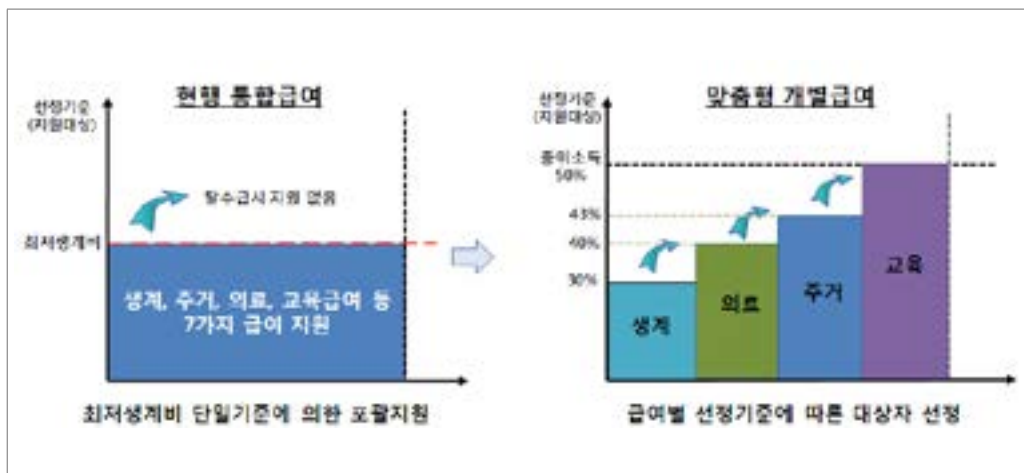
## 5-2.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 ① 저소득층

#### ▶ 맞춤형 개별급여 본격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4.1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만 지원되던 통합급여 체제를 개선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고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하여 보장성도 대폭 확대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친 평균 지원금액은 월 약 5만원 상승('14년 42→'15년 47만원/월) 하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및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21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14.11)134 → ('15년 하반기)210만명



### ▶ 일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동일금액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Ⅱ 신규 가입대상을 2만명 확대한다. 희망키움통장Ⅱ를 3년간 유지하는 근로자는 기간 만료 후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연료 구입비를 신규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1,058억원)한다. 약 96만 가구가 동절기(12~2월) 동안 월 평균 3.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받는다.

## ② 여성

### ▶ 양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연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월 7→10만원)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신설(67억원)하여 양육의무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성립·양육비 청구소송·이행 확보소송·채권 추심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도 본격 지원(50억원)한다.

###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10개를 추가로 개설하고(140→150개소),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630→740개)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 ▶ 다문화 콜센터 통합

다누리 콜센터,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등 다문화가정 관련 3개의 콜센터를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1577-

1366)로 일원화한다.

### ③ 장애인

#### ▶ 장애인연금 연간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 강화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2014년 7월부터 확대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연간 지급액이 2014년 180만원에서 2015년 242만원으로 증가한다. 지급 대상은 중증장애인 수 감소 추세에 따라 2014년 하반기 36.4만명에서 2015년 35.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2014년 87만원에서 2015년 93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 장애수당 인상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확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성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2014년 월 3만원에서 2015년 월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여 22만명의 경증장애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왕절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는 등 출산비용이 크므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대상을 2014년 1~3급에서 2015년 1~6급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하여 700여명의 여성장애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 ▶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1~2급 장애인 에서 1~3급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2014년 대비 2천 6백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 판정체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2015년 7월부터 신규로 시행할 예정이다.

## ④ 농어민

### ▶ 농수산 직접지불제 확대 등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기반 확충

쌀 관세화 유예종료 등 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종전 90만원/ha에서 100만원/ha로 인상하고, 겨울철에 이모작작물을 심는 경우에 지급되는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종전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여 농가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15년부터 받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이 기존 26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품목에 관계없이 ha당 25만원이 지급되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유기지속직불이 신설되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불금을 3년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농기계구입자금, 농어가경영회생자금, 축산관련 자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1~2%p 인하하여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농작물 수입하락 등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콩, 양파, 포도 등 3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수입보장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 ▶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농어민의 복지안전망 강화

농어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농지연금의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을 강화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을 당초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또한 질병 및 고령 등 일시적으로 영농 및 영어 활동이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 수를 당초 2만 6천가구에서 3만 2천가구로 확대한다.

## ⑤ 국가유공자

### ▶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인상

6.25 전쟁 및 월남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

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17→18만원)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월 23~25 → 24~26만원)을 각각 월 1만원씩 인상한다.

### ▶ 사망일시금 인상

보상금을 받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사망시 보상금 종결에 대한 위로와 장제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사망일시금을 20만원 인상(927~3,068천원→1,127~3,268천원)한다.

## 5-3.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 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가장의 사망·실직 등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가능한 소득기준을 월소득 기준으로 기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196~245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85% 이하(309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 예산이 2015년 2배 이상 확대(499→1,013억원)된다. 또한, 최대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한 긴급 생계비 지원단가도 2만원 인상(108→110만원/월, 4인 가구 기준)한다.

### ②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해소

#### ▶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해소

송파구 세 모녀 사건(14.2) 등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한다.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야쿠르트 아줌마 등 자원봉사자가 우리 주변의 틈새 빈곤층을 발굴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대폭 확대(60→100개)한다. 또한, 보건복지 콜센터(☎129) 상담원 확충(120→140명),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14~17년간 6,000명) 등으로 보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실업크레딧 신규 도입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3/4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5-4.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강화

### ① 문화융성 체감 확대

#### ▶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융성 체감 확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국적인 야외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신규, 90억원)하고, 주말 상설공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문화포탈’을 보강한다. 저소득층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누릴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확대(518→575억원)한다. 또한, 방방곡곡 문화공감(400여개 공연), 국립예술단체 순회공연(신규, 120여개)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공연·행사를 실시한다.

#### ▶ 문화 진흥 및 한국 이미지 홍보 확대

상상력과 창의력의 근간인 인문학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 도서관·박물관 등의 인문학 강좌를 확대(260→400개관)하고, 인생나눔 교실도 운영(신규 30억원)한다. 문화재의 원형보전 등을 위한 보수정비 지원을 확대(2,338→2,800억원)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을 확충한다. 또한, 한국 관광·문화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을 운영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광주 U대회 등 국내·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운영비를 지원한다.

##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유아체육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신규, 68개)함으로써 유아·청소년·성인·노년기로 이어지는 체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신규, 340개)하고, 모든 체육시설의 보험가입 여부 및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신규, 15억원)한다.

## ②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 ▶ 체육선수 복지 향상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2016년 리우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양양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 수당을 인상(일 5→6만원)하고, 후보선수 수당도 신설(일 2만원)한다. 또한,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종목 국가대표 훈련일수를 확대(70→100일)한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동계종목도 적극 지원한다. 국외전지훈련기간을 확대(50→90일)하고, 외국인 코치도 확충(6종목 10명→7종목 15명)한다.

### ▶ 창작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을 확대(1,600→3,500명)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인 소득기준에서 벗어나 위기상황, 예술활동 실적 등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 ▶ 예체능 학생 지원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예체능계 국가우수 장학금을 신설(11억원)한다. 2015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4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0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A)	2015년 (B)	증 감	
			B-A	증감률
총 지출	355.8	375.4	19.6	5.5
1. 보건·복지·고용	106.4	115.7	9.2	8.7
2. 교육 (교부금 제외)	50.7 (9.8)	52.9 (13.5)	2.2 (3.7)	4.4 (37.4)
3. 문화·체육·관광	5.4	6.1	0.7	13.0
4. 환경	6.5	6.8	0.4	5.5
5. R&D	17.8	18.9	1.1	6.4
6. 산업·중소·에너지	15.4	16.4	1.0	6.8
7. SOC	23.7	24.8	1.1	4.7
8. 농림·수산·식품	18.7	19.3	0.6	3.1
9. 국방	35.7	37.5	1.8	4.9
10. 외교·통일	4.2	4.5	0.3	6.7
11. 공공질서·안전	15.8	16.9	1.2	7.3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57.2 (21.6)	58.0 (23.1)	0.8 (1.6)	1.4 (7.4)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제3장

# 분야별 투자계획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01 R&D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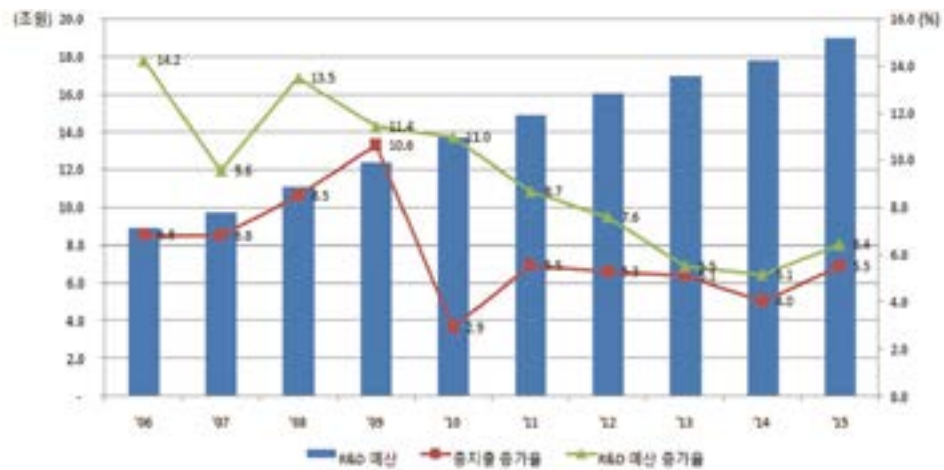
## 1-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14년 대비 6.4% 증가한 18조 9,231억원 편성하였다.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중 및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R&D 투자 지속적 확대

어려운 세입여건과 재정건정성 확보 필요 등 재정지출의 대폭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투자는 지속 확대하였다. 2015년 R&D 투자규모는 18.9조원으로 2006년 8.9조원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여 2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최근 R&D 증가율 또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그래프 1-1] 정부 R&D 투자 추이(2006~2015년)



▶ 창조경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

휴대폰, 반도체를 잇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개척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등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촉진,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R&D투자도 대폭 확충해 나간다.

▶ R&D 투자 효율성 제고

출연(연)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한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4년 시범 도입한 융합연구단을 확대(2→10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착수한 사업에 대한 사업 적격성 재검토를 강화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표 1-1] R&D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77,793	189,231	6.4
기초·나노	24,839	26,453	6.5
에너지·환경	25,341	25,473	0.5
우주항공·생명 등	47,098	52,746	12.0
기계·제조·공정	16,903	17,511	3.6
정보·전자	26,002	25,617	△1.5
인력양성 등 기타	37,610	41,432	10.2

## 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국가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 하고, 연구자의 연구기회와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 기초연구 비중 : (2014년) 37.1% → (2015년) 38.3% (7.1% 증가)

기초연구는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으로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연구 투자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2015년도는 38.3%,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측 가능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일반·신진 → 중견 → 리더 연구자」로 이어지는 경력 단계별로 연구역량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개인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및 중규모 집단기초연구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을 지원한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장치 및 시설구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에 대한 지원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표 1-2] 기초연구 투자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46,838	50,161	7.1
개인기초연구	8,498	8,987	5.8
소·중규모 집단기초 연구	1,477	1,517	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4,117	4,405	7.0
기 타	32,746	35,252	7.7

##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투자 강화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13대 미래성장동력 투자 : (2014년) 9,975억원 → (2015년) 11,054억원 (10.8% 증가)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제성장 선도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을 동시에 육성하여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13대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스마트 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등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미래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관리 스마트 시스템 등 공공복지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지능형 사물인터넷, 융복합 소재 등 고유한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타 분야의 구성·기반요소로서 융합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표 1-3] 신성장동력 R&D투자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9,975	11,054	10.8
5G이동통신	638	753	18.0
지능형 로봇	748	823	10.0
맞춤형 웰니스 케어	1,134	1,340	18.2
심해저 해양 플랜트	475	648	36.5
지능형 사물인터넷	226	313	38.7
기 타	6,754	7,177	6.3

## ▶ 경제협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투자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 투자 : (2014년) 29,770억원 → (2015년) 33,796억원 (13.5%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여 글로벌 기술혁신형 전문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비중을 2014년 16.7%에서 2015년 17.9%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 및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1,414→1,624억원) 한다.

또한, 2017년까지 세계적인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World Class 300프로젝트 지원을 강화(647→830억원)해 나간다.

[표 1-4] 중소기업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29,770	33,796	13.5
창업성장기술개발	1,414	1,624	14.9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336	1,586	18.7
World Class 300프로젝트 지원	647	830	28.4
경제협력관산업육성	-	1,234	순증
기 타	26,373	28,522	8.1

### ▶ 전략적 ICT R&D 투자를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SW로 구체화하고 문제점을 SW로 해결하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

☞ ICT R&D 투자 : (2014년) 10,040억원 → (2015년) 10,483억원 (4.4% 증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분야 등 ICT·SW 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1,478→1,663억원)하고, 국방, 건강, 교육 등 신산업분야와 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IT·SW융합 기술개발에도 중점 지원(350→486억원)하였다. SW 특성화 대학, 실전적 SW 교육 등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196→234억원)과 함께, SW융합 클러스터(3→5개소), SW융합기술 지원센터(174→200억원) 등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렸다.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293→410억원)하고,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부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20억원) 및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ICT산업 융합 보안을 위한 기술개발(30억원)에도 신규 지원 하는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력 강화에도 초점을 두었다.

[표 1-5] ICT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0,040	10,483	4.4
방송·통신·콘텐츠 분야	5,474	5,478	0.1
SW 분야	2,368	2,742	15.8
사업화 R&D 등	2,198	2,263	3.0

## 02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2-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6.4조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된 수준이다. 2015년에는 기업투자 촉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역점을 두었다.

#### ▶ 기업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뒷받침

고용창출과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해외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한다. 청년층과 혁신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및 기업연구소를 산업단지와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 연구개발,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 조성(214→23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 대외여건 악화 등에 대비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수출 시장을 보다 다변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량별·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에 제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30→45억원)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확대(136→168억원)한다.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에 이어 2015년부터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 신설된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 유도, 자발적인 조직화·협업을 통한 경영역량 강화, 한계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유도 등 ‘창업-성장-재도전’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고비용 생산구조와 현장인력 고령화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산업분야 R&D 4.3→4.6조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플랜트·로봇·항공·임베디드 SW 등의 분야에 IT를 융합함으로써 창조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R&D 투자도 대폭 확대(2.98→3.38조원)한다.

[표 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53,777	164,215	6.8
산업진흥·고도화	75,855	86,206	13.6
무역 및 투자유치	5,910	5,679	△3.9
에너지 및 자원개발	40,137	39,733	△1.0
산업금융지원	15,078	15,188	0.7
산업기술지원	12,037	12,345	2.6
산업·중소기업 일반	4,759	5,065	6.4

##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산업진흥 · 고도화 부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2014년) 75,855억원 → (2015년) 86,206억원 (13.6% 증가)

대형 융복합 R&D사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 IT융복합, 로봇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BT·IT 등 이중 기술간의 융합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제조원가 상승, 환율 급변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섬유·신발 등 전통산업의 경우에는異업종간 협력, 제품·공정 개선, 해외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여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재창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에 ICT를 접목하여 제조·생산·물류 등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성장희망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혁신기업 등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R&D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14.0→15.5조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과정이 막힘없이 이어지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한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자 발굴, 청년창업·엔젤투자 등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펀드 확충, 창조경제를 선도할 유망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75,855	86,206	13.6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411	541	31.6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784	875	11.6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50	순증
창업선도대학	508	652	28.8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00	1,600	60.0
소상공인지원용자	9,150	14,970	63.6

###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대외 불안요인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고,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 (2014년) 5,910억원 → (2015년) 5,679억원 (3.9% 감소)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수출 시장을 보다 다변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량별·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424→706억원)하는 한편,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하여 용자, 마케팅 등을 지원(신규, 3,050억원)함으로써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규모도 확대(40.5→45.0조원)한다.

또한, 새로운 수출시장·경로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유망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175→195억원)하고, FTA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도 확대(136→168억원)한다.

[표 2-3]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5,910	5,679	△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지원	2,160	2,205	2.1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424	706	66.5
중소기업해외진출기반구축	336	396	17.7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 (해외전시회 지원)	175	195	11.4
해외규격대응기반구축	136	168	23.5

###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저소득·취약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 (2014년) 40,137억원 → (2015년) 39,733억원 (1.0% 감소)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충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1,731→1,872억원), 스마트그리드 보급(172→220억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 간 융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접목으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도서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신규, 80억원)하여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기여한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향상에도 중점 투자한다.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등에는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2월)에 가스·등유·연탄 등의 난방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신규, 1,058억원)하는 등 에너지안전망도 함께 확충해 나간다.

[표 2-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40,137	39,733	△1.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731	1,872	8.1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172	220	27.8
LPG소형저장탱크보급	70	98	40.4
에너지바우처 지급	-	1,058	순증

### ▶ 산업금융지원 부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융자, 보증, 보험 등)을 확대한다.

☞ (2014년) 15,078억원 → (2015년) 15,188억원 (0.7% 증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유망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고용인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가젤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 전용자금(2,800억원)을 신설한다. 가젤형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은 i)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 ii) 고용창출 성과 제고, iii) 내수→수출기업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신용보증 공급규모,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도 확대한다. 우선 신·기보의 보증 공급규모는 58.2조원에서 59.5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어려운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당초 2014년말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던 시장안정특별보증(P-CBO) 지원기간을 1년 연장(2014년말 까지에서 2015년말 까지)하여 약 2조원 규모의 추가보증(재정출연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 인수총액도 14.0조원에서 15.5조원으로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

기업의 신용거래 위험을 흡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5] 산업금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5,078	15,188	0.7
신성장기반자금	8,350	10,270	23.0
신용보증기관출연	1,500	500	△66.7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022	285	△72.1

### ▶ 산업기술지원 부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술표준화 및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2014년) 12,037억원 → (2015년) 12,345억원 (2.6% 증가)

연구시설·장비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대 제조기반분야(조조, 금형, 용접, 소정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

국가표준화 역량강화와 신규 융합산업·서비스 분야의 선도기반 조성 등에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였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대출) IP 전문회수 펀드를 조성(400억 원 규모)한다.

[표 2-6] 산업기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2,037	12,345	2.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336	1,586	18.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470	2,620	6.1
산학연협력기술개발	1,458	1,520	4.2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00	312	3.9
모태펀드특허계정출연	-	170	순증

## 03 SOC 분야



### 3-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4.8조원으로 2014년 23.7조원 대비 4.7%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SOC 기반시설의 적기완공 및 노후 시설 안전·유지보수 투자 확대 등 경제 활성화 뒷받침과 안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SOC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SOC 투자를 단기적으로 확대한다.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 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완공 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경우 2015년 조기완공토록 지원한다.

#### ▶ 시설 안전 및 유지보수 투자 확대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노후 터널·교량·댐 등의 시설 안전 및 유지보수 투자에 중점을 둔다. 그간 투자부족으로 대기하고 있는 개량·보수 물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안전성을 제고한다.

#### ▶ 재정투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적극 뒷받침

원활한 사업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비를 조기 지원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신규 민간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표 3-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236,895	248,069	4.7
도 로	84,695	90,845	7.3
철도·도시철도	68,033	74,051	8.8
해운·항만	15,052	16,643	10.6
항공·공항	1,008	1,360	34.9
물류등 기타	20,151	20,046	△0.5
수자원	23,830	22,731	△4.6
지역 및 도시	15,137	13,489	△10.9
산업단지	8,991	8,903	△1.0

###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도로 부문

공기 연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중인 사업의 완공에 집중 투자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이용환경 조성 투자를 확대한다.

☞ (2014년) 84,695억원 → (2015년) 90,845억원 (5.6% 증가)

중부내륙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충주-제천 고속도로가 금년 중 완공될 계획이다. 교통수요 증가 등으로 지·정체가 극심했던 양재-기흥, 영동-옥천, 안산-일직 등 확장 사업도 금년 중 마무리 된다.

국도 신규사업은 간선기능 확충에 필수적인 소요 위주로 최소화하고, 공사비 증가 방지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속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 완공을 유도한다.

※ 국도 완공사업(건) : ('14) 30 → ('15) 60

차량방호 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보강,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등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폭이 좁거나 급커브, 낙석, 산사태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과 병목지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첨단 도로교통체계(ITS)를 활용하여 주변 교통상황, 도로 파인 곳·결빙 등 사고발생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민간투자사업의 토지 매입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보상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

\* 민간투자사업 토지매입비(억원) : ('14) 10,380 → ('15) 12,575

[ 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 ]



[표 3-2] 도로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A+B+C)	84,695	90,845	7.3
국토교통부(A)	83,912	90,168	7.5
- 고속도로	14,766	15,226	3.1
- 국도	37,832	36,292	△4.1
- 민자도로	14,148	17,346	22.6
- 지자체 도로	6,740	6,496	△3.6
- 국도 유지관리	10,426	14,808	42.0
행정자치부(B)	782	369	△52.8
국민안전처(C)	-	309	순증

## ▶ 철도 부문

주요 거점역과 국가교통 기간망을 촘촘히 연결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주요시책과 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 (2014년) 61,800억원 → (2015년) 67,463억원 (9.2% 증가)

수도권 고속철도가 2016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철도망 고속화·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며, 일반철도는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복선전철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서해선·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등 신규노선 착공에 투자한다.

특히, 국책사업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을 집중지원하며,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군장산단, 울산신항 등 주요항만·산업단지를 간선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를 확충한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광역교통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계속사업인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주민들의 편의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접선·하남선·별내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철도 운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일반철도 시설개량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 투자하였다.

[표 3-3] 철도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61,800	67,463	9.2
고속철도	17,928	5,312	△70.4
일반철도	26,354	40,098	52.1
광역철도	3,135	5,359	71.0
철도운영	14,383	16,694	16.1

## ▶ 도시철도 부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지하철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시철도 내진보강 및 스크린도어 설치'를 신규로 지원한다.

☞ (2014년) 6,233억원 → (2015년) 6,588억원 (5.7% 증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잠실운동장~보훈병원), 인천 2호선 건설, 대구 1호선·부산 1호선 연장 등 공사 중인 계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투자하며, 대전 2호선, 광주 1호선 등 초기단계(기본계획·설계)에 있는 사업들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비 등을 지원한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서울지하철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비(227억원), 전국 지하철역 중 스크린도어 미설치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비(675억원)를 신규로 지원하여 대도시 주요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운행 중인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지원한다.

[표 3-4] 도시철도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6,233	6,588	5.7
도시철도 건설지원	5,884	6,284	6.8
도시철도 경영지원	349	304	△12.9

▶ 해운 · 항만부문

연안 여객선 및 해사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해양경제거점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권역별 거점 항만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2014년) 15,052억원 → (2015년) 16,643억원 (10.6% 증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 장비보강 및 시스템 개선 등 체계적인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그리고 동북아 항만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울산신항, 복합물류허브 및 컨테이너 항만간 연계 강화를 위한 광양항, 인천신항 등 신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포항, 동해항, 여수 신북항 등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마리나 및 크루즈 항만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전략거점으로 항만 재개발을 추진하며, 항만건설 및 물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3-5] 해운 · 항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5,052	16,643	10.6
신항만 개발	5,053	5,304	5.0
주요항 및 일반항	7,072	8,236	16.5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1,499	1,602	6.9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395	424	7.3
해양교통 및 안전관리	1,033	1,077	4.3

## ▶ 항공 · 공항 부문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남권 신공항 · 제주공항 확장, 울릉도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등 공항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2014년) 1,008억원 → (2015년) 1,360억원 (34.9% 증가)

항공안전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및 항공안전체계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설 현대화 등 항행안전에 필요한 각종 무선 · 정보통신 · 기상시설의 교체 및 개량을 확대하고,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비상시에도 안전한 관제를 위하여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 종합통제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공항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증장기 발전방향 마련을 위해 권역별 공항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울릉도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계획이다.

영남권 신공항은 지역 간 합의를 전제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주공항은 항공수요가 확보되어 기존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

항공전문인력양성 2차사업(2014년~2018년)을 지속 추진하며, 제트기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표준교육교재를 개발을 추진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3-6] 항공·공항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008	1,360	34.9
항공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363	481	32.5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120	240	100.0
항공안전 종합통제센터 구축	13	144	1,007.7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35	80	128.6
항공전문인력양성	43	48	11.6

### ▶ 물류 등 기타 부문

체계적인 해양영토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시설 확충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 인프라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해외건설 수주 지원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2014년) 20,151억원 → (2015년) 20,046억원 (0.5% 감소)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을 2014년에 1개소에서 2015년에 2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수도권 복합화물터미널 진입도로 등 물류인프라 확충과 함께 물류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다변화와 투자형 해외사업 진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건설 글로벌 청년리더양성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생활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지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을 통한 교통 약자 이용편의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BRT 및 환승센터 구축 추진 등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또한, 자동차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튜닝부품인증센터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감차보상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택시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3D 지도제작 등 국토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시설 물 및 하천지도 전산화, 항공안전기술개발 등 안전분야 정보화 및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해양기본조사·정밀조사·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우리 해양영토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해도·해류·파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해양정보제공에 투자를 강화한다.

[표3-7] 물류 등 기타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20,151	20,046	Δ0.5
물류정책	277	197	Δ28.9
건설·기술정책	492	397	Δ19.3
교통정책	3,767	3,288	Δ12.7
국토교통R&D·정보화	5,073	5,380	6.1
국토교통행정지원	3,074	3,173	3.2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1,421	1,597	12.4

## ▶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2014년) 23,830억원 → (2015년) 22,731억원 (4.6% 감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암댐 용수시설의 안정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수도 관로시설 복선화 및 노후관 개량 사업을 2014년 3개에서 2015년 4개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에 대한 용수공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하천정비율은 2014년 87.1%에서 2015년 89.8%로, 지방하천정비율은 2014년 55.2%에서 2015년 57.4%로 하천정비 확대를 추진하되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 위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댐의 안정성 증대를 위한 치수능력증대 사업과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적기 완공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강우레이더 및 하천화상감시시스템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홍수 피해 위험 관리 및 홍수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

[표3-8] 수자원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23,830	22,731	△4.6
용수공급	394	691	75.4
댐건설및치수능력증대	3,830	3,752	△2.0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9,303	18,014	△6.7
수자원정책	303	273	△9.9

## ▶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개발, 도심재생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지역·도시 : (2014년) 15,137억원 → (2015년) 13,489억원 (10.9% 감소)
- ☞ 산업단지 : (2014년) 8,991억원 → (2015년) 8,903억원 (1.0% 감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 맞춤형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하여 생활편익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한편, 도심 내 쇠퇴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종합적인 기능회복을 위해 2014년 5월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13개소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과 함께 올림픽 상징거리 조성 및 시가지 정비,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방범, 방재 등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분석할 수 있는 U-city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건축물 안전 제고를 위해 건축자재, 시공과정 등을 샘플링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현황 조사를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위치정보 정확성을 위한 기준점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2014년 정부청사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완료와 함께 이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및 행정·문화·복지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이 동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청을 통해 최적의 투자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광역 기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기반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6~70년대 조성하여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정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산단의 공업용수도 건설 및 혁신도시 비즈니스 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표3-9]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지역 및 도시	15,137	13,489	△10.9
– 지역개발	4,450	4,032	△9.4
– 도시정책	1,523	1,705	12.0
– 국토정보관리	1,122	1,234	10.0
– 국토지리정보	883	928	5.1
– 행복청	6,975	4,908	△29.6
– 새만금개발청	185	683	269.2
산업단지	8,991	8,903	△1.0
– 산업단지 진입도로	7,629	7,610	△0.2
– 지역거점조성지원	1,080	906	△16.1
– 산업단지 지원	282	387	37.2

## 04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 4-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9.3조원으로 2014년 18.7조원 대비 3.1% 증가하는 모습으로서 이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 2.1%를 웃도는 수준이다.

FTA 확대 및 쌀 관세화 유예종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수산물의 수출 및 유통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 ▶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

영연방 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축산분야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우 직거래 매장 신규지원, 가축개량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맞춰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통합 RPC 설치도 확대하여 쌀 생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쌀 품질 제고를 적극 뒷받침한다.

농업과 문화산업 등이 융합 · 발전된 6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귀농 · 귀촌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어촌이 생동감 넘치도록 하는 한편, 우수 종자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여 ICT 기술을 농어업에 접목하는 등 우리 농어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유도한다.

### ▶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농어민에게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농가경영 등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불금, 재해보험료 등 체감도 높은 사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쌀직불금, 이모작직불금 등의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3개품목) 신규도입과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농지연금의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지원도 강화하여 농어민에 대한 맞춤형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 FTA 확대를 계기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

농수산물품을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품목으로 적극 육성되도록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해외 판로 확대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제2파프리카 육성 사업(유자차, 화훼 등 5개 품목)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을 수혜대상별로 재편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농수산식품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화 지원 및 K-Seafood 프로젝트 등 해외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 ▶ 친환경 지원확대·유통체계 개선 및 농업 안전투자 강화

친환경직불금(유기)의 지원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농산물 계약재배 및 직거래매장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방역지구 소독세척시설 설치 및 저수지 철새 관측시스템 구축 신규 지원 등을 통해 AI, 구제역 등 대규모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예방백신 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재해예방시설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표 4-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87,334	193,065	3.1
농업·농촌	141,604	144,862	2.3
수산·어촌	18,993	19,952	5.0
임업·산촌	19,014	19,854	4.4
식품업	7,723	8,397	8.7

## 4-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농업·농촌 부문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농식품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농식품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제고를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가축질병·재해대비 등 안전분야의 지원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 (2014년) 141,604억원 → (2015년) 144,862억원 (2.3% 증가)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직불금, 재해보험료 등 직접지원을 강화한다.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종전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청보리·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모작 직불금을 종전 ha당 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는 한편,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도 3.3㎡당 5천원 인상한다.

한편,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한도를 최대 1억 1천만원까지 확대하며, 종전 배와 단감 외 사과 품목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입보장보험(3개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요건을 완화(부부모두 65

세 이상→가입자 65세 이상)하여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 쌀관세화 유예종료 및 FTA에 따른 추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원예·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축산·과수·원예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한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FTA를 농수산물 수출 저변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수출전략형 중자산업 육성을 위한 Golden Seed(황금씨앗) 프로젝트,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 등의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FTA 발효 이후 국내 농수산물 공급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생산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의 일정부분을 직접 보전하는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 지원금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김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이버거래·직매장 등 다양한 방식의 신 유통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도매시장의 시설은 현대화함으로써 유통구조 혁신과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양파·무를 신규 비축하는 등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단기적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정확한 농수산물관측을 기초로 계약재배 및 정가·수의거래 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격변동률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영연방 FTA 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을 지원한다. 사육환경 개선, 우량 축종 개발을 통한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사료 생산 품질 개선 및 친환경 축산업 진흥을 위해 분뇨처리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살처분 보상금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1차 산업(농축산업)에 2차(가공·식품), 3차(유통·관광)를 융복합하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촌 성장 활력을 제고한다. 6차 산업화 지구, 6차 산업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해 6차산업 선도 모형을 전국에 확산하며, 6차 산업화 우수 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 물류시스템, 판매촉진 활동지원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공공 승마시설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충, 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보강한다. 특히, 공공·민간 승마시설 및 말산업 특구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단위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재해 대응능력을 개선하는 한편, 농지 정리 및 생산시설 현대화, 영농 규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표 4-2] 농업·농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41,604	144,862	2.3
쌀 고정직불금	7,740	8,450	9.2
농지규모화	1,430	1,886	31.9
농업재해보험	2,701	2,853	5.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97	490	23.4
농지연금	339	394	16.2
산지유통종합자금	5,500	6,480	17.8
시도가축방역	770	1,038	34.8
말산업 육성	201	371	84.6
생산기반 안전분야	12,826	14,298	11.5

## ▶ 수산·어촌부문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체계 확립과 수산물 가공·유통·식품산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수출지원 및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2014년) 18,993억원 → (2015년) 19,952억원 (5.0% 증가)

수산물생산 역량 제고를 위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투자를 강화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및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등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지원을 확대한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급증하는 수산물의 국제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K-Seafood 프로젝트 등 수산물 수출 여건 조성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귀어·귀촌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항 개발 및 관리, 어촌마을 활성화 등 어업인 삶의 터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낙도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어촌을 위한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표 4-3] 수산어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8,993	19,952	5.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278	3,231	△1.4
수산물 유통·식품·안전	6,129	6,243	1.9
수산경영	3,305	3,462	4.8
어촌·어항 개발	3,741	4,295	14.8
원양협력 등 기타	2,540	2,721	7.1

### ▶ 임업·산촌 부문

산림자원의 육성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며, 산림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한다.

☞ (2014년) 19,014억원 → (2015년) 19,854억원 (4.4% 증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우량묘목 생산 확대와 묘목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유림에 대한 매수사업을 확대하고, 신제품 개발 및 품종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교육·휴양·치유 인프라를 보완·확충하며, 산림문화진흥 및 숲길 기반조성과 생활권 녹지공간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지자체 등에 치유의 숲 모델제시를 위해 국유치유의 숲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시설을 확대하고, 임업인의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임업분야 대외개방에 대비 임산물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업연구성과에 대한 기

술이전과 실용화사업을 지속추진한다. 또한, 국산목재 이용활성화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산림재해 예방·복구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산림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인력운영을 강화한다. 산사태 취약지 중심의 현장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예방단을 확충하는 한편, 집중호우·태풍 등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제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4-4]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9,014	19,854	4.4
조림	990	1,002	1.2
묘목생산	65	93	43.1
산림휴양등산증진	210	214	1.9
청정임산물이용증진	434	543	25.1
사방사업(사방댐포함)	2,950	2,978	0.9
산림병해충방제	846	945	11.7

### ▶ 식품업 부문

식생활·영양, 식품안전,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신시장 개척 및 수출애로 해소를 통해 해외유망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2014년) 7,723억원 → (2015년) 8,397억원 (8.7% 증가)

농식품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 및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출관련 사업체계를 재편하여 품목별 규모화·조직화 및 수출애로사항 개선하는 한편, 생산·물류, 판매 등 각

단계별 수출진흥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수출농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식품의 해외수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농업·수출 연계 강화를 위해 원료구매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對중국 수출 유망 5개 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에 대한 생산·상품화·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제2파프리카 육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식품산업 교육인프라 구축 및 창업교육을 통해 식품부문의 미래 유망직업 발굴 및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 및 저직능 중심의 식품산업 인력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표 4-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7,723	8,397	8.7
수출인프라강화	329	360	9.4
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	3,070	3,534	15.1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1,711	1,959	14.5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73	75	2.7
국가인증, 표준, 기능성평가	89	95	6.7
제2파프리카 육성지원	-	15	순증
일자리창출을위한 인력양성	-	17	순증

## 05 보건·복지 분야



### 5-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15.7조원 수준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최초로 30%를 초과('15년 30.8%)하였다. 서민·취약계층의 소득기반 확충·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복지지원, 고용-복지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 서민·취약계층의 소득기반 확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본격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 추가,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기관 확대 등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및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으로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제로 전환한다.

#### ▶ 세대별 맞춤형 생활안정 프로그램 지원 확대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확대 등을 통해 보육의 품질을 제고한다. 기초연금 본격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충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도 중점을 둔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 건설 확대, 에너지 바우처 신규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 ▶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을 신규로 도입한다.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 복지직 공무원 확충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를 경감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5-1]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064,388	1,156,824	8.7
기초생활보장	88,310	94,773	7.3
취약계층지원	17,987	23,688	31.7
공적연금	364,031	396,612	8.9
보육·가족·여성	57,156	54,278	△5.0
노인·청소년	65,619	90,362	37.7
노동	144,588	155,162	7.3
보훈	44,576	46,376	4.0
주택	182,343	183,867	0.8
사회복지일반	7,440	7,697	3.5
보건의료	19,451	22,808	17.3
건강보험	69,665	77,442	11.2
식품의약품안전	3,221	3,760	16.7

## 5-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본격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2014년) 88,310억원 → (2015년) 94,773억원 (7.3%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본격 전환된다. 소득수준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을 차별화해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4년 11월 현재 134만명에서 2015년 하반기 210만명으로 약 76만명 확대된다. 평균 지원수준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쳐 2014년 월 평균 42만원에서 47만원 수준으로 약 5만원이 상승하게 된다. 한편, 제도개편 결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는 이행기 급여를 지원하여 제도 개편이전 급여 수준을 유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가장의 사망·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소득자에서 최저생계비 185% 이하 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배 이상 확대(499→1,013억원)해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보호한다.

[표 5-2]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88,310	94,773	7.3	
생계급여	25,240	26,988	6.9	123→135만명
주거급여	7,285	11,230	54.2	73→97만 가구
의료급여	44,366	45,334	2.2	133→147만명
교육급여	1,111	1,353	21.8	21→70만명
희망키움 통장	483	556	15.0	26→37천 가구
긴급복지 지원	499	1,013	103.0	8→16만건

### ▶ 노인·청소년 부문

노후 빈곤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본격 확대 시행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 노인 (2014년) 63,839억원 → (2015년) 88,215억원 (38.2% 증가)

청소년 (2014년) 1,780억원 → (2015년) 2,147억원 (20.6% 증가)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14년 447만명에서 2015년 464만명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2014년 180만원에서 2015년 24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확충 및 건강유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 기준 2014년 31만개 일자리를 2015년 33.7만개로 늘렸으며, 어르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재능활용형 일자리의 사업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두배 연장할 계획이다.

무의탁 어르신이 거주하는 양로시설의 운영비를 지자체 전액 지원에서 국고보조사업

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대규모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 요양시설의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급식,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200→250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54→200개소)한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련시설 안전 평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운영(64억원)한다.

[표 5-3] 노인·청소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65,619	90,362	37.7	
기초연금	52,001	75,824	45.8	447→464만명
노인일자리운영	3,052	3,442	12.8	31→33.7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5,849	5,972	2.1	44.0→45.5만명
양로시설운영지원	-	320	순증	94개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45	184	27.1	200→250개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80	364	30.3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 부문

장애인의 소득기반 확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 (2014년) 17,987억원 → (2015년) 23,688억원 (31.7% 증가)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2014년 7월 확대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14년 상반기 9.7만원에서 2014년 하반기 20만원, 2015년 20.3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성인)도 2014년 월 3만원에서 2015년 월 4만원으로 월 1만원 인상된다.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500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청자격을 2013년 2급 장애인으로의 확대에 이어 2015년 3급 장애인으로 추가 확대한다. 활동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위기상황의 중증장애인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 판정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평가 뿐만 아니라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다.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비를 지자체 전액 지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가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장애인에게 좀 더 나은 거주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휴식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표 5-4] 취약계층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17,987	23,688	31.7	
장애인연금	4,660	5,618	20.6	월 20→20.4만원
장애수당	1,056	1,313	24.3	월 3→4만원
장애인활동지원	4,285	4,679	9.2	1~2급→1~3급 장애인
장애인일자리	604	662	9.6	14,594→15,094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4,280	순증	464개소
발달장애인 지원	12	40	245.3	7,340가구 휴식 신규 지원

## ▶ 공적연금 부문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 (2014년) 364,031억원 → (2015년) 396,612억원 (8.9% 증가)

4대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382→415만명, 공무원연금 36.9→39.5만명, 사학연금 5.2→5.7만명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신규 도입한다.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표 5-5] 공적연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율 (b/a)	비 고
합 계	364,031	396,612	8.9	432.5→468.6만명
국민연금 급여	145,814	165,875	13.8	382→415만명
실업크레딧	-	124	순증	34만명/월
공무원연금 급여	102,365	110,699	8.1	36.9→39.5만명
군인연금 급여	28,042	28,588	1.9	8.4→8.4만명
사학연금 급여	22,627	25,517	12.8	5.2→5.7만명

## ▶ 보육·가족·여성 부문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 영유아보육료 단가 : (2014년) 동결 → (2015년) 3% 인상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014년) 2,503개 → (2015년) 2,674개
- ☞ 공공형 어린이집 : (2014년) 1,800개 → (2015년) 2,000개
-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2014년) 월15만원 → (2015년) 월17만원
- ☞ 아이돌보미 수당인상 : (2014년) 5.5천원/시간 → (2015년) 6천원/시간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경제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영유아 및 여성에 대한 지원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핵심 연결고리이다.

정부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지원단가를 전년대비 3%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71개소 신규 확충한다.

또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월 2만원 인상(월 15→17만원)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무제를 도입('15.10월)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수당을 10%(5.5→6천원/시간) 인상하고,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지원을 현실화한다.

[표 5-6] 보육·가족·여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57,156	54,278	△5.0	
영유아보육료	33,292	30,494	△8.4	누리과정 이관 단가 3%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53	334	△5.2	171개소 확충 (2,503→2,674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385	441	14.4	200개소 확대 (1,800→2,000개소)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356	1,522	12.2	월 15→17만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운영	86	98	14.0	'15.10월 평가의무제 도입
아이돌보미 지원	799	787	△1.4	돌봄수당 9.1% 인상 및 4대보험 현실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등 11.5억원 타사업으로 이관

▶ 노동 부문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청년·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 (2014년) 144,588억원 → (2015년) 155,162억원 (7.3%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사업장 내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차별을 해소할 경우 추가 임금 지원분의 50%를 지원(220억원, 0.8만명)한다. 또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80억원)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Ⅱ) 지원을 확대(12→15만명)하고 현장에서 직무 중심으로 배우고 이를 통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0.1→0.3만개 기업)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지속 확대(0.5→0.9만명)한다. 중장년의 경우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확대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5-7] 노동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144,588	155,162	7.3	
취업성공패키지	2,171	2,746	26.5	취약계층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552	5,793	4.3	사회보험료지원
고용보험기금	70,549	77,654	10.1	구직급여 지원
산재기금	47,155	49,846	5.7	산재급여 지원
임채기금	2,865	3,071	7.2	체당금 지급
장애인기금	2,579	2,581	0.1	장애인고용촉진
근복지금	1,114	1,460	31.1	근로자복지지원

## ▶ 보훈 부문

국가유공자 희생·공헌에 따른 보상금을 3.5~6% 인상 및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월 1만원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확대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노후생활도 지원한다.

☞ (2014년) 44,576억원 → (2015년) 46,376억원 (4.0% 증가)

2015년에 보상금을 3.5~6%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희생의 정도에 따라 추가 배려가 필요한 상이 1급 특별수당을 본인보상금의 75~35%까지 추가 지원한다.

- 보상금(상이 6급2항) : (2014년) 1,064천원 → (2015년) 1,101천원
- 상이 1급 특별수당 : (2014년) 658~1,700천원 → (2015년) 795~1,886천원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각각 월 1만원 인상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한다.

- 참전명예수당 : (2014년) 월 17만원 → (2015년) 월 18만원
- 무공영예수당 : (2014년) 월 23~25만원 → (2015년) 월 24~26만원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인성질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를 확대하고, 의료복지향상을 위해 인천보훈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진료비 : (2014년) 4,993억원 → (2015년) 5,103억원
- 인천보훈병원 건립 : (2015년 신규) 115억원

보상금을 받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사망시 보상금 종결에 대한 위로와 장제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사망일시금을 20만원 인상하여 지원한다.

- 사망일시금 : (2014년) 927~3,068천원 → (2015년) 1,127~3,268천원

[표 5-8]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44,576	46,376	4.0	
보훈보상금	23,435	24,539	4.7	3.5~6% 인상
참전·무공수당	5,764	6,093	5.7	월 1만원 인상
진료비	4,993	5,103	2.2	
인천보훈병원건립	-	115	순증	신설
사망일시금	60	77	28.8	20만원 인상

### ▶ 주택 부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월세 대출을 신설하는 등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 ☞ 임대주택 지원 : (2014년) 49,612억원 → (2015년) 57,486억원
- ☞ 주택구입·전세자금 : (2014년) 93,643억원 → (2015년) 90,660억원

2015년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3만호 늘어난 12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건설임대주택 7만호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5만호 공급함으로써 입주자가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철도부지·유수지 등 도심 내에 건설하여,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경제활동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도 전년 대비 1.2만호 늘어난 3.8만호를 신규로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복주택의 총 14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편,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리츠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리츠 1.6만호, 민간제안리츠 1.0만호를 공급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9.1조원을 지속 공급한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ETTC 수급자'에게 연 2.0% 금리로 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월세대출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통합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설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게 2.7~3.3% 금리(저소득층은 1.0%p 금리우대)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주택구입자금으로 '디딤돌 대출'을 지속 지원하며, 신규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0.2%p 금리를 추가 우대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의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 설치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150억원을 지원하며, 아울러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승강기 공사, 세대내부 환경개선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표 5-9] 주택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182,343	183,867	0.8	
주택구입·전세자금	93,643	90,660	△3.2	
행복주택	4,294	10,454	143.5	2.6→3.8만호
다가구매입	8,545	9,815	14.9	1.0→1.3만호
국민임대	18,951	8,976	△52.6	1.0→0.7만호
임대주택리츠	-	7,080	순증	
재정비촉진사업	1,250	1,150	△8.0	

### ▶ 보건의료 ·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지원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2014년) 92,336억원 → (2015년) 104,009억원 (12.6% 증가)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 및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하여 고위험 산모 · 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설치(신규 3개소)하고, 분만산부인과 및 외래 산부인과 설치도 지속 지원(신규 5개소)한다.

영유아 건강증진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예방접종대상 항목을 A형간염(평균 10만원/인)까지 포함한 총 14종으로 확대하고,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병원(6,000개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야간진료센터를 확대 운영(10→20개소)한다.



■ 예방접종 대상감염병(14종)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속적으로 지원(63,221→70,974억원)한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조성 및 체계적 영양공급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를 확대(150→190개소)하고, 국가실험동물의국산화 및 자원화를 위해 실험동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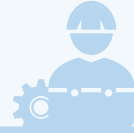
원은행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홍보도 강화하며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표 5-10] 보건의료 ·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92,336	104,009	12.6
보건의료	19,451	22,808	17.3
건강보험	69,665	77,442	11.2
식품의약안전	3,221	3,760	16.7

## 06 일자리 분야



### 6-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4.3조원으로 2014년 13.2조원 대비 7.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비정규직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성 및 실질임금 개선,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사업장 내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차별을 해소할 경우 추가 임금 지원분의 50%를 지원한다(220억원, 0.8만명). 또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80억원)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Ⅱ) 지원을 확대(12→15만명)하고 현장에서 직무 중심으로 배우고 이를 통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0.1→0.3만개 기업)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지속 확대(0.5→0.9만명)한다. 중장년의 경우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확대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6-1] 일자리분야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32,459	142,536	7.6
직접일자리	28,918	27,990	△3.2
직업능력개발훈련	16,214	17,890	10.3
고용서비스	5,396	6,118	13.4
고용장려금	21,141	25,316	19.7
창업지원	17,289	18,390	6.4
실업소득 유지·지원	43,500	43,832	0.8

## 6-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직접일자리 부문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66.6만개를 창출한다.

☞ (2014년) 28,918억원, 66.6만개 → (2015년) 27,990억원, 66.6만개

2015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내년도 고용 여건 및 임시적 일자리라는 한계점을 감안하여, 2014년 수준인 66.6만개를 지원한다. 다만,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는 확대(19.9→20.7만명)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였다.

노인일자리 규모를 30만명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한다. 특히,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확대(3.0→3.7만명)하고 참여기간도 2배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3→6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장애인의 근로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을 확대(4.0→4.3만명)하여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

[표 6-2] 직접일자리 창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28,918	27,990	△3.2
장애인활동지원	4,285	4,549	6.2
노인일자리운영(일반)	2,767	3,012	8.8
노인일자리 운영(재능활용형)	103	234	126.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1,907	2,140	12.2

### ▶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현장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통해 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고용부 중심으로 직업훈련 예산과 심사·평가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 (2014년) 16,214억원 → (2015년) 17,890억원 (10.3% 증가)

지역·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과정 수료시 취업과 연계하는 채용 연계형 맞춤형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공동형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현재 14개 시·도별 지역단위로 14개소 운영중인 지역 HRD를 3개 추가 설치하여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직종 인력 부족에 따른 기업의 서비스인력 수요에 부응하여 ‘서비스특화 폴리텍’을 수도권에 1곳 설치하여 민간훈련기관을 통한 인력공급이 어려운 직종(금융 정보, 바이오 등) 중심으로 연간 600여명의 서비스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의 유사·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 및 취업과의 연계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부 중심으로 직업훈련 예산과 심사·평가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고, 취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표 6-3]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6,214	17,890	10.3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996	4,628	15.8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2,133	2,352	10.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086	2,296	10.1

### ▶ 고용서비스 부문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 통합, 확대를 통해 기초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센터 확대 및 고용센터 인력통합 등을 통해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 (2014년) 5,396억원 → (2015년) 6,118억원 (13.4% 증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I)과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확대하고 고용센터 직접 수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를 지속 확충(누적 10→32개소)하고 대국민 점점 인력인 고용센터 비공무원의 직종 통합(7→1개 직종)을 통해 현장밀착형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 통합 효과 ]

	현 행	통합 후
국가의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민간기관 위탁 수행</li> <li>- 민간위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가기관(고용센터) 직접수행</li> <li>- 국가직접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절감</li> </ul>
참여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사업이나 참여자 지원수준 차등</li> <li>* (희망리본) 최대 400, (취성패) 최대 665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통합에 따른 참여자 지원수준 상향 평준화</li> <li>* 최대 665만원</li> </ul>

[표 6-4] 고용서비스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5,396	6,118	13.4
취업성공패키지	2,171	2,746	26.5
고용센터인력지원	356	526	47.8
직업안정기관운영	251	364	44.8

### ▶ 고용장려금 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 (2014년) 21,141억원 → (2015년) 25,316억원 (19.7% 증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 및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신규, 220억원, 8천명)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기간제·시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월 임금 135→140만원 미만)하고, 지원인원을 확대(169→180만명)한다.

또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2015년부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 노무관리비 및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사업주에게는 기존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노무관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표 6-5] 고용장려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21,141	25,316	19.7
정규직전환지원금	-	220	순증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552	5,793	4.3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227	314	37.0

### ▶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유지·지원 부문

대학 내 창업인프라 조성 및 자금지원 등을 확대하고, 실직자 및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2014년) 60,789억원 → (2015년) 65,222억원 (7.3% 증가)

창업지원은 우수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청년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추가 설치(21→28개소)하고, 청년 인재들이 창업 전에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인턴제' 사업(50억원)을 신설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자금 확충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확대(1,000→1,600억원)하고, 사업실패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재기희망 기업인을 대상으로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200억원)도 신설한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판결만 있으면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지원제도를 신설(1.7만명)한다.

[표 6-6]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유지·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60,789	65,222	7.3
창업선도대학	508	652	28.3
모태펀드출자	1,000	1,600	60.0
구직급여	38,602	41,084	6.4
채당금지급	2,525	2,743	8.6

## 07 교육 분야



### 7-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교육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2.9조원이며, 2014년도 50.7조원보다 4.4% 증가한 수준이다. 2015년에는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투자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며,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에 주력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 확충 등을 통한 대학 특성화와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예산 대폭 확충

국가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D·E급<sup>1)</sup>) 개축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시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 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예방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수 등 실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환경 개선(1,606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시설안전 개선(1,074억원) 및 수산·해양계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137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따라 안전 등급을 5개 등급으로 구분(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충(3조 6,753→3조 8,456억원)하는 등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확충하여(1,225→2,000억원) 지원대상이 2학년까지 확대된다.

한편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1~2학년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2014년 운영규모 11,000실 이상)을, 3~4학년은 학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하는 등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지원**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특성화 사업(2,587→2,617억원) 및 학부교육선도대학(ACE)육성 사업(573→594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BK21 플러스 사업을 계속하여 지원(2,974→2,982억원)할 계획이다.

###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기반 확충**

전문대학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통해 직업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 지원을 확대(2,696→2,969억원)한다. 또한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존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314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표 7-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506,995	529,187	4.4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1,451	414,568	0.8
고등교육	88,704	107,449	21.1
평생·직업교육	5,716	6,150	7.6
교육일반	1,124	1,020	△9.3

##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이 정착되도록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복지 증진과 창의·인성교육 중심 수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2014년) 411,451억원 → (2015년) 414,568억원 (0.8% 증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을, 3~4학년은 학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4년 운영규모인 약 11,000실의 초등돌봄교실에서 약 22만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학교의 수요 및 여건에 맞게 3~4학년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를 파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확대 배치(2,600→2,750명)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의 처우 개선(18→19백만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지원한다. 특수교육 현황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와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도 확대(31→57억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확대 및 예비비를 지원하여 3~5세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학교교육 환경개선, 방과후교육 활성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학교 체육 활성화,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표 7-2]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411,451	414,568	0.8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31	57	8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8,681	394,056	△3.6

▶ **고등교육 부문**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셋째 아이이상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 (2014년) 88,704억원 → (2015년) 107,449억원 (21.1% 증가)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3조 6,753억원→3조 8,456억원)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근로장학금을 확대하여 1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 양질의 교외근로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권역별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부처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2017년까지 우수 근로장학기관을 500개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우수장학금도 지속 지원된다. 특히, 예체능계 분야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 사업 지원을 확대(2,031→2,075억원)하여, 대학의 강점 분야와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BK21 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혁신기술개발로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동 발전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1,606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 실험실습실의 안전 장비 및 소방시설 등을 확충하여 실험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해양계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실습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5척의 선박 설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문후속세대부터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까지 연구자 생애주기에 맞는 인문사회분야 및 이공학분야 학술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 저변 확대와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인문사회기초연구(1,330→1,350억원)와 인문학진흥(599→619억원) 지원을 강화하여 학문간 균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7-3] 고등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88,704	107,449	21.1
국가장학금 지원	36,753	38,456	4.6
지방대 특성화 사업	2,031	2,075	2.2
BK21 플러스 사업	2,974	2,982	0.3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2,467	2,467	-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1,606	순증
인문사회 기초연구	1,330	1,350	1.5
인문학 진흥방안	599	619	3.3

## ▶ 평생·직업교육 부문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 서비스체계 구축 지원 및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2014년) 5,716억원 → (2015년) 6,150억원 (7.6% 증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35개교), 일자리 친화적 자격·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비학위 전문가과정(15개교) 지원 등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읍·면·동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19→29억원)한다.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강좌 등 전국의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가능한 “늘배움” 평생학습포털과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체계 구축(하반기 시범 제공 계획)을 지원(25억원)함으로써 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은빛 청춘대학



부산 서구 발마사지 양성과정

전문대학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8개 전문대학 추가로 선정(78→86개교)하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지원을 확대(2,696→2,969억원)한다. 아울러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195억원)할 예정이다.

산업계 직무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학교와 직업훈련기관에서 가르치기 위한 NCS 학습교재(학습모듈) 개발(314개)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사업 지원을 확대(141→243억원)한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등 재외동포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621억원), 교육분야 ODA를 확대하는 등 국제교육 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7-4] 평생·직업교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5,716	6,150	7.6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81	170	△6.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50	58	16.0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8	73	25.9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696	2,969	10.1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195	195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141	243	72.3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654	621	△5.0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44	168	16.7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603	580	△3.8

## 08 문화·체육·관광 분야



### 8-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1조원 수준으로 2014년 5.4조원보다 13.0%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일상 속 문화융성 체감 확산에 중점을 두고, 문화분야 투자가 단순히 문화예술 공연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창조경제를 견인할 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체육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진한다.

#### ▶ 일상 속 문화융성 체감 확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야외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신규, 90억원)이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예술단체들이 지방문예회관을 순회하며 공연함으로써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신규, 57억원)한다.

####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속 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자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이 동호회와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형 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경쟁력 낮은 노후산업단지나 기능을 잃은 폐산업시설 등을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창조경제를 견인할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콘텐츠 분야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800→1,100 억원)한다. 또한,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애니메이션, 만화 등에 대한 직접 투자도 확대함으로써 콘텐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할 예정이다. 창의력·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들은 완성보증 강화(20→50억원)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에 기반한 콘텐츠 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자금도 신규로 지원(신규, 100억원)한다.

콘텐츠 제작 자금 지원 뿐만아니라 인프라 지원을 위해 콘텐츠 관련 창작부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5→7개소) 및 게임개발센터(2→4개소)를 확충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창작자들이 스토리를 구상할 수 있는 스토리창작센터(2→7개)를 확대한다.

### ▶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특히, 체육시설 건립외에도 기존 학교체육시설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고, 개인별 체력 수준을 정확히 판단해주는 광역 거점체력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 ▶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대회 성공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하계·동계 올림픽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 후보 선수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태릉선수촌 노후시설 보강 및 진천 종합훈련장 건설로 과학적·체계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등이 차질없이 건립될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8-1]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54,130	61,181	13.0
문화예술	22,404	23,590	5.3
관광	12,316	13,719	11.4
체육	10,463	13,541	29.4
문화재	6,199	6,887	11.1
문화및관광 일반	2,748	3,444	25.3

## 8-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문화예술 부문

일상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산업을 한국형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2014년) 22,404억원 → (2015년) 23,590억원 (5.3% 증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야외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90억원)이며, 국립예술단체들이 지방문예회관을 순회하며 공연(57억원) 함으로써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속 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을 제외한 기초 지자체의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이 모여 동호회와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형 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120→135억원)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의 근간인 인문학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 도서관·박물관 등의 야간 연장개관을 지원하고, 전문 강사·저자가 직접 설명해주는 '길 위의 인문학' 등

공공 인문학 강좌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국립시설인 한글박물관의 본격 운영(86→120억원)을 통해 한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28→31개소), 해외관광문화센터 및 세종학당(130→140개소)을 늘리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확대(650→804억원)한다.

콘텐츠 분야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등 콘텐츠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800→1,100억원)한다. 또한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애니메이션, 만화 등에 대한 직접 투자도 확대함으로써 콘텐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할 예정이다.

콘텐츠 관련 창작부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콘텐츠 코리아랩(Lab), 게임업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게임개발센터, 아이디어가 풍부한 창작자들이 스토리를 구상할 수 있는 스토리 창작센터 조성 등을 통해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표 8-2] 문화예술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22,404	23,590	5.3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90	순증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	57	순증
문화향유시설 접근성확대	120	135	12.5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51	334	33.1
한글박물관 운영	86	120	39.5
해외문화원 운영	312	417	33.7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20	440	100.0
한글의 가치확산	102	161	57.8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650	804	23.7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00	500	150.0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516	565	9.5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02	136	33.3

## ▶ 관광 부문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래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2014년) 12,316억원 → (2015년) 13,719억원 (11.4% 증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아진 여가수요에 부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광활성화 기반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지역 단위의 볼거리, 먹을 거리, 체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컨벤션 개최 현장에 한국관광 홍보 체험관,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신규, 14억원)하는 등 국제회의(MICE)·의료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관광 분야도 집중적으로 육성(268→286억원)한다. 또한,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서의 한국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방한 분위기를 조성(67→262억원)한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을 접목한 관광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출자(신규, 130억원)하고, 관광공사 등 공공이 가지고 있는 관광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10억원)하여 민간의 창조 관광기업 창업·발전을 지원한다.

걷기, 자전거, 카누, 인라인스케이팅 등 인간의 힘으로 이동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연을 체험하고 즐기는 것을 목표로 무동력 레저관광 체험활동과 숙박, 장비대여 등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관광정보 플랫폼(두루누리)을 구축(신규, 10억원)한다.

‘가족이 함께 하는 캠핑’이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국립공원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보수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135→151억원)한다. 또한, 저탄소 녹색시대에 맞게 생태녹색관광·스토리가 있는 문화탐방로·슬로시티 등도 만들어 국내관광의 다변

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지역관광 개발 사업이 인프라 조성 위주로 추진되어 운영 저조, 지역주민의 수혜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기 조성된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음식·숙박·프로그램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들 주도의 관광경영 공동체(관광두레) 운영을 지원(20→30억원)한다.

[표 8-3] 관광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2,316	13,719	11.4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1,009	1,475	46.2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38	154	305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465	562	20.9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20	440	100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180	296	64.4
MICE산업 육성 지원	214	237	10.7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30	199	563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	70	순증

### ▶ 체육 부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위해 전문체육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강화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스포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 (2014년) 10,463억원 → (2015년) 13,541억원 (29.4% 증가)

건강 100세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3,611→4,718억원)한다.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537.4→484.5억원)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초·중·고등학교에 개방형 학교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113→253.6억원)한다. 특히 체육 시설 신규 건립 외에 기존 학교체육시설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규 추진(51억원, 340개교)한다. 또한 유아체육활동지원 프로그램(68개)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유아·청소년·성인·노년기로 이어지는 체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서 및 산간 지역 등 낙후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버스도 신규 운영(연 80회)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6리우올림픽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양양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 수당을 인상(일 5→6만원)하고, 후보선수 수당도 신설(일 2만원)한다. 2016 리우올림픽 대회를 대비하여 하계 종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지훈련 종목 및 인원을 확대(15종목 642명→19종목 841명)하고 외국인 코치 지원도 확대(5종목 6명→8종목 10명)한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동계 종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외전지훈련 기간을 확대(평균 50일→90일)하고, 외국인 코치 지원도 확대(6종목 10명→7종목 15명)한다. 동계종목의 경우 선수들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종목별로 기술분석, 장비관리, 의료지원 등을 전담하는 종목별 전담팀도 운영(17종목 48명)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경우 경기장, 진입도로, 개·폐회식장 등 건설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관련 지원을 확대(1,345→2,974억원)한다.

국기인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국립 태권도 시범단 운영, 태권도 사범 파견, 주한 외국인

대상 태권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을 확대(68→102.2억원)한다. 2014년 개원한 태권도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단 공연 지원 등 관련 지원을 지속(192억원)한다.

장애인 체육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속 지원(2015년 3개소)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증원(261→292명)한다.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종목 국가대표 훈련일수도 확대(70→100일)하고, 2018년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실업팀 육성도 신규 지원(1억원×4개)한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 R&D도 대폭 확대(87→130억원)하고,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통한 투자로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신설, 200억원)한다.

[표 8-4] 체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0,463	13,541	29.4
생활체육 시설 지원	710	1,318	85.6
국가대표선수 양성	419	454	8.2
한국동계스포츠육성	119	159	33.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	1,346	2,974	121.0
태권도 관련 지원	262	294	12.1
스포츠산업활성화	25	321	1,199.2
장애인 체육활성화	251	338	34.9

## ▶ 문화재 부문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과 중요문화재 맞춤형 특별관리, 중점관리 문화재 정기점검 강화, 방재시설 확대 등 문화유산 보존체계를 고도화하고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4년) 6,199억원 → (2015년) 6,887억원 (11.1% 증가)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13년 12월~'14년 5월) 결과에 따라 보존 조치가 시급한 문화재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으로 민간 전문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국보·보물 등 7,393건과 유물 다량 소장처 47개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특별 종합점검을 시행하고,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 보조 사업비를 증액(2,338→2,800억원)하여, 그동안 제때 보수정비가 어려웠던 문화재에 대해 적기 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에 대한 가벼운 보수와 상시 관리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공공근로 수준의 인력 운용에서 외공 등 전문기술인력(85명)을 전국 시·도에 배치하여 돌봄 사업을 강화하고, 유물 다량 소장처에 대해 보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재설비 설치 대상을 국가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42개소)로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영상 통합시스템을 구축(서울 흥인지문 등 22개소)하는 등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개선할 예정이다. 소화·경보 설비 설치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합 점검(모니터링)하여 문화재 피해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는 훼손도, 상징성,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분야별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의 구조·풍화·

생물 피해 등 주요 훼손 원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예방적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생활 속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활용 사업(38→71건), 문화유산을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70→105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친숙함을 더 높이고, 대외적으로 문화유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고품격 문화유산 영상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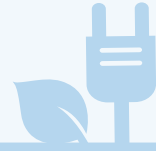
광복 7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관련 등록문화재 특별전,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문화유산을 소장한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전시 등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등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 8-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6,199	6,887	11.1
문화재보존관리	3,079	3,570	15.9
문화재정책기반 구축	105	123	17.1
문화재보호	566	627	10.8
문화유산 교육연구	418	449	7.4
문화재국제교류	408	424	3.9
공능원관리	497	502	1.0

## 09 환경 분야



### 9-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8조원이며, 5.5% 증가한 수준이다. 201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심 침수지역, 상하수도 실태조사 등 안전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 ▶ 상하수도 등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 강화

도심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는 상하수관의 실태조사, 정밀진단 등을 지원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습 침수 지역이나 공단폐수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원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 자원순환 사회와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

폐기물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재활용(업사이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에게 지원(융자)을 확대하는 한편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립공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표 9-1] 환경분야 재정투자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64,560	68,119	5.5
상하수도·수질	43,245	45,323	4.8
대기	2,665	3,390	27.2
폐기물	3,235	3,105	△4.0
자연 및 해양환경	6,611	7,400	11.9
환경 일반	8,804	8,901	1.1

##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상하수도·수질 부문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안전관리와 도시침수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해 선택적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 (2014년) 43,245 억원 → (2015년) 45,323억원 (4.8% 증가)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과 환경기초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등에 선택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폭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도심에는 저류시설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하수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설치를 강화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과 도서 등 취약지역에는 정수장, 하수관 등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하수의 수질검사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개편(지역특별회계 생활계정으로 이관)하였다.

산업단지 등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불의의 사고로 폐수가 유출될 경우, 2차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2015년부터는 지원범위를 기존의 낙동강 수계에서 영산강, 금강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나 공단 등의 사고위험에 대비한다.

일상생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조류 발생 등에 대한 수질감시를 강화하고 녹조 예·경보제를 운영한다. 일정 기준치 이상의 녹조가 발생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지자체 등에서는 정수처리 등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과 시설·장비 확충, 관련 연구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표 9-2] 상하수도·수질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43,245	45,323	4.8	
하수관거 정비	7,329	8,727	19.1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574	2,810	9.2	
하수처리장 확충	3,611	3,775	4.5	
도시침수 대응	1,757	2,424	38.0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82	216	163.7	
생태하천 복원	2,605	2,820	8.3	'14년 지특회계경제계정 →'15년 생활계정이관

## ▶ 대기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컨설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사업 등 친환경차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전기차는 아직까지 시장형성 초기단계이고 하이브리드차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장수요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대기환경에 자동차 등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미미한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는 대기 질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산업육성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대기유해 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하거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존에 수도권에 시행하던 미세먼지 예·경보제는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미세먼지 측정소 등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도 확대하였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식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효과 도출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중국의 제철소 등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중국과 재원을 분담하되 우리 측 부담분을 최소화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진출 기반이 마련 되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으로 국내 환경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을 경우,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9-3] 대기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2,665	3,390	27.2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54	788	209.9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	304	순증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	100	순증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169	179	5.4

## ▶ 폐기물 부문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존의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방식인 소각·매립시설 설치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등의 자원회수 시설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업사이클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를 구축한다. 업사이클이란 가방, 가구 등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에 디자인 또는 기능성을 가미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나 미국·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내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또한 자원순환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폐전자 제품, 폐자동차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세한 재활용 업체가 운영자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용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가공하고 제품으로 재생산 되도록 지원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폐기물이 분리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배출 시설설치도 지원한다.

[표 9-4] 폐기물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3,235	3,105	△4.0
재활용 산업육성 용자	749	1,037	38.2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 설치 지원	81	61	△24.7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703	643	△8.5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선진화	-	13	순증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	9	순증

### ▶ 자연 및 해양환경 부문

자연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한반도에 있는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우리가 보유한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나아가 동식물 등의 특성을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민간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자연에 대한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탐방로 정비 등 국립공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생태탐방 연수원 설치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오염이 심각한 해역에 대한 퇴적물 정화와 복원을 추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유입종

차단도 지속 추진한다.

[표 9-5] 자연 및 해양환경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6,611	7,400	11.9
환경생물산업 소재 발굴	-	25	순증
국립공원 사업	1,114	1,327	19.0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확충	135	209	54.3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50	247	395.0
연안환경관리	549	634	15.5

### ▶ 환경일반 부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2015년부터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일정한 시험절차를 거쳐 유해성 여부를 검증받고 관계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러한 화학물질 관리 강화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계기관의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경찰, 소방, 기업체 등 업무 관련자가 화학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훈련장을 조성한다. 화학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별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를 습득하도록 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지붕)와 지하철의 석면 마감재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가구당 평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보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환경기업의 기술개발(R&D)부터 해외수출 까지 순 과정 지원하는 환경산업 실증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환경기술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표 9-6] 환경일반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8,804	8,901	1.1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80	140	76.6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45	53	17.8
석면관리 종합대책	311	390	25.2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23	85	270.0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195	382	95.9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	670	688	2.7

# 10 국방 분야



## 10-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37.5조원으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4.9%)로 반영하였으며, 선진 병영문화 정착 및 장병 안전·복지 향상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 ▶ 장병 인성·인문교육 확대

GOP 장병 맞춤형 인성교육과 GOP 부대 지휘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신규 실시하고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하는 등 인성·인문교육을 강화하여 군 내부 사건사고 방지 등에 역점을 둔다.

### ▶ 병영생활 환경 개선

병영생활관 및 화장실, 세면장, 취사식당 등 병영생활시설 신축·리모델링을 지속 지원하며, 그간 신규 투자가 제한되었던 해체·이전 예정부대의 노후 병영 생활관을 전면 개선하고, 제초·부대환경정비 작업 등 부대 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 하는 등 병영생활 환경 개선을 강화한다.

### ▶ 장병 안전 강화·복지 향상

2015년에는 11개 모든 GOP 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신형 방탄복과 전투용 응급 처치 키트를 보급하고 의무후송헬기 운용을 확대(3→6대)하여 장병 안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병사보급은 전년대비 15%, 급식비는 5% 인상하는 등 병영 생활 전반의 근무여건을

향상하고 GOP 소초내 실내헬스장과 농구장을 각각 신규 설치하여 장병 복지 향상을 제고한다.

▶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Kill Chain 및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강화하고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국방개혁 추진으로 확장된 작전지역을 원활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등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과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기동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을 제고하고 창끝 부대(대대급) 전투력을 향상시킨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상 전력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이지스급 전투함과 대형 수송함 확보 등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며 FA-50, F-X, KF-X 등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첨단 전력을 확보한다.

또한 기초연구, 핵심·민군겸용기술, 보라매·소형무장헬기 개발 등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전년대비 4.3%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을 확보하며, 방위산업 활성화 및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표 10-1] 국방분야 재정투자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357,056	374,560	4.9
병력운영	148,408	155,811	5.0
전력유지	103,551	108,610	4.9
방위력 개선	105,097	110,140	4.8

##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병력운영 부문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 및 급식비를 인상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 추진에 따라 전투력 유지 및 병력 정예화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한다.

☞ 병력운영 : (2014년) 14.8조원 → (2015년) 15.6조원 (5.0% 증가)

병사들이 병영 내에서 생활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병사 월급을 15% 인상하고, 고위험·고강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UDT/SSU 등 근무 장병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장병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5.0% 인상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민간조리원도 증원한다. 또한 겨울 운동복 등 개인피복류의 공급을 확대하고 일선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신형 방탄복, 전투용 응급처치 키트 등을 확대 보급한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군 구조 개편으로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부사관을 2,800여명 증원하는 등 병력 정예화를 추진한다.

[표 10-2] 병력운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148,408	155,811	5.0	
인건비	103,587	110,282	6.5	처우개선을 +3.8%
급식 및 피복	19,694	20,501	4.1	기본급식비 단가 +5.0% 6,848 → 7,190원
기금 전출금 등	25,127	25,027	△0.4	-

## ▶ 전력유지 부문

전방부대 전투역량과 군수지원 강화를 통해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장병 의·식·주 여건 개선과 군 의료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복무여건도 개선한다.

☞ 전력유지 : (2014년) 10.4조원 → (2015년) 10.9조원 (4.9% 증가)

전방부대 전투력 발휘를 위하여 낙하산, 발전기 등 장비·물자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GP·GOP 작전시설을 보강하고, 도서·해안지역의 경계시설도 보강한다.

전투력 강화와 전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군수지원능력을 보강(4.2→4.5조원)한다. 주요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해 정비·수리부속공급을 확대하고, 탄약고·무기고 등 노후 전투지원시설을 현대화 한다.

각급 부대의 전투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제 전투와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용 탄약 공급을 확대(3,179→3,401억원)한다.

병영생활관 및 식당, 목욕탕, 화장실 등 장병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병영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그간 투자가 제한되었던 해체·이전 예정 부대의 노후 병영생활관도 전면 개선(신규, 230억원)한다. 또한, 제초·부대환경정비 작업 등 부대 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신규, 70억원)하는 등 병영생활 환경 개선을 강화한다.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군 의료지원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입영장병 신체검사 항목을 확대(5→11개)하고, 상병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1·3군→전 장병)하여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한다.

[표 10-3] 전력유지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103,551	108,610	4.9	
군수지원 및 협력	45,217	47,377	4.8	장비유지 2.3→2.5조원
군사시설건설및운영	24,756	26,129	5.5	병영생활관 개선 91.4→95.0%
군인사 및 교육훈련	5,008	5,001	△0.1	마일즈 장비(신규 129억원)
기타	28,570	30,103	5.4	

### ▶ 방위력개선 부문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을 확보하고 자주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 능력을 보강하며 창조형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을 활성화한다.

☞ 방위력 개선 : (2014년) 10.5조원 → (2015년) 11.0조원 (4.8% 증가)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표적을 탐지·타격하는 Kill Chain 과 적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개인화기주야조준경, 원격운용통제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접적지역 전면전 능력을 보강한다.

사단정찰용UAV,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을 확충한다. 또한,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K-2전차 등을 확보하여 기동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창끝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K-11복합형소총, 단안형야간투시경 등을 확보한다.



사단정찰용UAV

대형공격헬기(아파치)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대형공격헬기 등 신속한 기동 및 정밀타격이 가능한 전력 확보, 차기상륙함 등 해상 교통로 보호능력 및 상륙작전능력 강화, F-X 등 공중 우세 달성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기초연구, 핵심기술, 민군겸용기술, 보라매·소형무장헬기 체계개발 등 국방연구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을 확보하며, 방위산업 활성화 및 방산수출 지원 인프라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10-4]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05,097	110,140	4.8
무기체계 양산 및 도입	80,205	84,292	5.1
국방 R&D 투자	23,345	24,355	4.3
방위사업종합지원 등 기타	1,547	1,493	△3.5

# 11 외교 · 통일 분야



## 11-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외교 · 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며, 2014년 예산 4.2조원보다 6.7% 증가한 수준이다. 동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4년 1.9조원에서 2.0조원으로 6.4% 증가한 수준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전년 보다 1,212억원 증액한 1조 2,396억원 수준이다.

### ▶ ODA 지원 확대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5년도에는 최근 국제사회의 재난, 분쟁 등의 급증에 따른 인도적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뿐 아니라 해외 청년 일자리 파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기업 진출 수요와 수원국 인프라 개발수요에 맞춘 대개도국 차관 사업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들의 신흥시장 확대에도 기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 전수를 위한(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중점 추진하고, 한국 농촌개발의 경험 확산을 위한 개도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중 등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와 함께, 남북 간 실질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관련국간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과 함께 한·일 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전통적 안보관계뿐 아니라 핵심중견국 협의체(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활성화를 통해 바람직한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수립 및 집행을 통해 세계 각국과 문화 외교활동을 확대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우리 문화에 동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 강화에 노력한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비정상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적 문제해결, 민생인프라 구축, 민족동질성회복 등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 가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 마련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표 11-1]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42,142	44,956	6.7
외교·통상 부문	28,538	29,931	4.9
통일 부문	13,604	15,025	10.4

## 1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외교·통상 부문

국제기여 확대로 국격을 제고하고 국제 외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재외공관 인프라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외교·통상부문 총지출은 2조 9,931억원으로 편성한다.

☞ 외교·통상부문 총지출: (2014년) 28,538억원 → (2015년) 29,931억원 (4.9% 증가)

2015년도 외교·통상부문 총지출은 2조 9,931억원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등 국제기여 확대에 의해 2014년도 보다 1,39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공적 개발 원조(ODA) 예산을 확대하되 국제적인 역량강화, 우리나라 기업 및 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 재난, 분쟁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해외긴급구호지원 사업(307→403억원, 31.3%) 등을 확대하고, 해외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 ODA봉사단 파견인원을 확대(4,915→5,318명, 8.2%) 한다. 또한, 우리나라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와 개도국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추어 대개도국 차관(7,533→8,380억원, 11.2%)을 확대한다.



베트남 초등학교 건립사업

세네갈 식수개발 사업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관련국간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8→18억원),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발전과 함께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전통적 안보관계 뿐 아니라 핵심중견국 협의체(MIKTA) 활성화(신규, 5억원) 및 ASEAN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18→102억원) 통해 외교관계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전략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세계 각국과 문화교류 활동을 확대한다.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우리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90→133억원)한다.



'14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성과발표회

'14 퀴즈온 코리아 결승전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등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51→103억원)하고, e-아포스티유 시스템 구축 등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고(34→58억원)한다. 또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처우개선 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981→1,024억원)하여 외교 인프라를 확충한다.

[표 11-2] 외교·통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28,538	29,931	4.9	
공적개발원조(ODA)	18,589	19,785	6.4	KOICA 출연, EDCF, 국제부담금 등
공공외교 역량강화	90	133	47.8	

## ▶ 통일 부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문 총지출은 1조 5,025억원으로 편성한다.

- ☞ 통일부문 총지출 : (2014년) 13,604억원 → (2015년) 15,025억원 (10.4% 증가)
- ☞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 (2014년) 11,184억원 → (2015년) 12,396억원 (10.8% 증가)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모자패키지 및 보건의료 협력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430→791억원), ②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축산 및 산림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추진(1,344→2,241억원), ③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지원을 위해 DMZ 평화공원 조성 및 문화유산 공동 발굴 등 추진(555→581억원) 등 3대 구상을 차질없이 추진(2,329→3,613억원)한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 비전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오두산 통일전망대 개보수(29.6→47.3억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비 지원(56억원), 학교통일교육 강화(42→45억원) 등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5년은 광복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제2의 광복으로서의 국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재조명하고 다양한 통일문화예술사업을 추진(신규, 20억원), 남북 당국간 종교·체육·문화 등 공동행사 및 분야별 민간교류 추진(29→71억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청소년의 학력보충 및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대안학교 지원(신규, 10억원), 거주지 최초 배정시 TV,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 지원을 통한 조기 정착 지원(3→13억원), 수도권에 취업상담 및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신규, 10억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강화한다.

2014년 7월 발족한 통일준비위원회(41억원) 지원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 마련

등 민·관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표 11-3] 통일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13,604	15,025	10.4	
「드레스덴 통일구상」	2,329	3,613	55.1	
• 남북한 인도적 문제해결	430	791	84	
• 민생인프라 구축	1,344	2,241	66.7	
•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555	581	4.7	
통일교육 강화	162	199	22.8	
광복 70주년 기념	2	35	165.0	통일문화행사(일반회계) 20억원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기금) 15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1,227	1,246	1.6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	41	순증	

# 12 공공질서 · 안전 분야



## 12-1. 재정지원 방향

2015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16.9조원으로 2014년 15.8조원보다 7.3% 증가하였다. 2015년 예산은 현장중심의 해양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 4대 사회악 근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재난 예방 강화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중점 투자하였다.

### ▶ 현장 중심의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양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행 가능한 「해양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골든타임 내 수색구조 강화를 위해 해상 및 항공구조장비를 대폭 보강하며, 해양 수색구조 영역을 심해와 연안까지 확대하는 등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한다.

### ▶ 재난안전 소프트웨어 및 재난현장 소방 대응 역량 강화

실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방위 및 국민참여 훈련을 내실화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풍수해 보험, 재해위험지구, 소화천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 재산의 신속한 보호 및 사전예방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한다.

특히,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등 특수재난사고 대비를 위해 정부합동 방재센터 6개소를 건립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성범죄 등 4대 사회악 사범 단속을 지속 지원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 관리를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및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긴급생계비 및 심리치료비 등 직접 지원의 비중을 확대하여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최근 학대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아동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여 가정내에 아동의 지문 및 유전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아동 안전 지킴이 키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표 12-1] 공공질서·안전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합 계	157,866	169,431	7.3
법원 및 헌재	16,157	16,820	4.1
법무 및 검찰	29,791	30,863	3.6
경찰	90,636	96,760	6.8
해양경찰	11,597	12,360	6.6
재난관리	9,684	12,628	30.4

## 1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사법절차 지원,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향상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강화한다.

- ☞ 가사재판운영 : (2014년) 37억원 → (2015년) 50억원 (37.0% 증가)
- ☞ 민사재판지원 : (2014년) 68억원 → (2015년) 75억원 (10.5% 증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14.9.29.)됨에 따라 특례법상 규정된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위탁 등 사법절차 지원을 통해 아동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아동 등에 대한 복리증진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재판의 준비 및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증인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16개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외국인, 다문화가정, 노약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통합소송지원실 설치와 소송지원관 등 물적·인적 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사법접근성 제고 및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표 12-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16,157	16,820	4.1	
가사재판운영	37	50	37.0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사법절차 지원
민사재판지원	68	75	10.5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지원
법정중심재판지원	281	289	2.6	증인지원실 확대설치 등

## ▶ 법무 및 검찰부문

4대악 사범에 대한 수사 지원, 특정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구조금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 ☞ 성범죄 등 4대악 사범단속 : (2014년) 44억원 → (2015년) 51억원 (17.2% 증가)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 (2014년) 594억원 → (2015년) 915억원 (54% 증가)

성·가정·학교 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성폭력 전담 수사반 및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사범 및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정범죄(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살인)로 전자발찌를 피부착한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2015년에 12개팀 추가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38개 팀을 운영함에 따라 각종 경보에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이 대상자에 대한 불시 현재지 출장 등 보다 밀착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규모를 확대(594→915억원) 하여 구조금,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등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의 비중을 확대한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지방 이양된 아동 학대예방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적절한 위기개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우수한 외국인 국내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비자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창업이민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자취득 절차 및 소양교육 등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을 통한 새로운 창조경제의 축을 마련한다.

[표 12-3]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29,791	30,863	3.6	
성범죄 등 4대악 사범단속	44	51	17.2	성범죄사범 단속반 및 부정식품사범단속반 운영 등
특정범죄자위치관리	96	103	8.2	전자발찌 아간비상경보 처리 전담반 확대(26→38팀) 운영 등
국제투자분쟁중재 수행 및 대응	59	112	90.2	국제투자분쟁 대응력 강화 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50	순증	과거 지방이양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지원
소년원생 수용	116	152	31.0	재난·안전 대비 소년원 자동 출입문 전면 설치(11개소) 등

## ▶ 경찰 부문

4대 사회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인력을 3,760명 증원하는 한편, 기동순찰대 도입, DNA 신감식기법 및 동영상·대용량 수사자료 분석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관리장비 도입 및 노후 헬기 교체 등 국민안전을 위해 치안인프라를 확충한다.

☞ 신임순경교육 : (2014년) 253억원 → (2015년) 285억원 (12.7% 증가)

☞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R&D) : (2015년) 22억원(신규)

경찰관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매년 경찰 3,760명을 증원을 추진한다. 증원된 인력은 대부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어 현장 치안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4대악 근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피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속기사 지원,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우리아이지킴이 키트 도입, 가정폭력 솔루션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기동순찰대 운영



우리아이지킴이 키트 (자녀 DNA 채취·보관용)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7.3~14, 12일간) 등 국가적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경호·대테러 활동 및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 등 안전하고 공명정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 도입 등 112신고 대응 체계 강화, 과학수사요원 안전보호장비 지급, DNA 신감식기법(Y-STR) 도입 및 동영상·대용량 수사자료 분석 시스템 도입 등 신규 시스템과 장비 도입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치안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최초로 도입해 CCTV영상 분석 기법 개발, 스마트 신호 운영 체계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화학·방사능보호장비 등 재난안전관리 장비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의경부대 노후버스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헬기를 교체하는 등 치안 인프라를 확충한다.

[표 12-4]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90,635	96,760	6.8	
신임순경교육	253	285	12.7	증원인력 교육경비 등 증액
생활안전활동	64	87	34.4	기동순찰대 운영
성폭력범죄수사	19	21	14.1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참여수당 등 증액
범죄감식및관리	164	180	9.7	DNA 신감식기법 도입(Y-STR)
헬기운용 및 현대화	236	245	3.7	노후헬기 1대 교체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R&D)	-	22	순증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 등

## ▶ 해양경찰 부문

제2의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해양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한다.

- ☞ 연안구조장비 도입 : (2014년) 36억원 → (2015년) 81억원 (125% 증가)
- ☞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 구축 : (2014년) 51억원 → (2015년) 159억원 (209.6% 증가)

해양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행 가능한 「해양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골든타임 내 수색구조 강화를 위해 해상 및 항공구조장비를 대폭 보강하며, 해양 수색구조 영역을 심해와 연안까지 확대하는 등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한다.

해양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어선 자동위치확인 시스템(V-Pass)을 조기 설치하고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며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있는 구조 작업을 위해 해난구조 잠수지원정, 개선형 연안구조정 등을 도입한다.

또한,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함정 건조는 기존사업의 완공 위주로 연차적 소요를 지원한다.

### [ 개선형 연안구조정 도입 ]



강제 전복 모습

자가 복원 모습

[표 12-5] 해양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11,598	12,360	6.6	
대형함정건조	737	1,080	46.5	대형함정 3척, 고속단정 6척 등 건조
노후함정대체건조	1,343	1,439	7.1	노후 중·대형 2척, 소형 10척 등 대체건조
V-Pass시스템구축	51	159	209.6	어선 31,565척 설치

### ▶ 재난관리 부문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시설투자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하여 재난의 신속한 대응·복구·예방 능력을 제고하며, 어린이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재해예방투자 : (2014년) 6,277억원 → (2015년) 7,122억원 (13.6% 증가)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 (2014년) 540억원 → (2015년) 526억원 (2.6% 감소)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소하천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특히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 대비 6개 특수사고대응센터를 건립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투자를 하드웨어 중심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하고, 노후소방차, 첨단구조장비 등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항공 긴급구조 및 구급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후 소방헬기 보강도 확대한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15년 3,141억원)하여 소방·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재난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괴,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대한 CCTV 설치 예산을 확대(540→526억원, 16,454→20,084 개소)하여 범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표 12-6] 재난관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4년(a)	2015년(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9,685	12,628	30.4	
재해예방투자	6,277	7,122	13.6	우수저류시설 35개소 등
소방안전교부세	-	3,141	순증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확충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540	526	△2.6	CCTV 3,630개소 확충 등

**참고 ▶ 안전 분야**

2015년 안전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4.7조원 수준이며, 전년 대비 19.1% 증가한 수준이다. 2015년에는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진단, 예방, 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비상대응'에서 '일상관리'로 안전관리의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투자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질적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안전예산 관리체계 개편**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예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범위, 성질별 분류를 재정립하였다. 사업의 목적 및 기능 등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안전예산은 재난의 예방, 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고, 광의의 안전예산은 협의의 안전예산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성질별로도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R&D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

**▶ 안전예산 대폭 확대**

안전예산은 2014년 12.4조원에서 2015년 14.7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9.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 교육·훈련 등을 중점 지원하였다. 재난전문인력을 2014년 27명에서 2015년 4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싱크홀 예방 기술개발에 신규로 42억원을 투자하는 등 안전 R&D도 집중 투자하였다. 소방차, 첨단구조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도 1,000억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재난안전통신망(신규 470억원)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예방, 대응을 도모하였다. 위험도로 및 노후철도·교량 개선을 위한 투자도 1.4조원에서 2.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14년~2017년간 5조원 조성되는 안전투자 펀드를 통해 민간안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DDos 등 사이버 테러, 유해물질 확산 등에 대한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관련 국산장비·서비스 구매,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를 안전산업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표 12-7] 안전분야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26,034	32,841	노후소방장비 지원(신규 0.1조원)
■ 위험시설 기능강화	25,680	33,791	위험도로, 노후철도 개선(1.4→2.1조원)
■ 교육·훈련	735	1,191	재난전문인력양성, 재난대응훈련 등
■ 안전 R&D	5,198	6,004	재난예방·피해저감 기술개발
■ 안전기능 보완·지원	5,764	6,542	해양안전체험관 신축(신규 13개소)
■ 재난예방시설 구축·보완	41,959	44,536	댐·항만 건설 등
■ 예비비	18,387	22,538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 비중확대(10→20%)
합 계	123,757	147,443	19.1% 증가





# 03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제1장

2015년도 예산



### 제2장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www.mosf.go.kr](http://www.mosf.go.kr)

# 제1장 2015년도 예산

## ■ 일러두기

이 책에 기재된 예산액은 2014년 12월 2일 통과된 국회 확정액 기준이며 이후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관의 예산은 본 예산에서 이체 처리되었음.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01 2015년도 예산총칙



-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58,585,647,374,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611,908,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7,203,427,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03,879,56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57,360,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951,909,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5,066,725,000,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13,165,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75,778,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91,985,039,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53,472,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75,983,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4,130,000,000원
⑭ 지역발전특별회계	10,338,940,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542,598,000,000원
⑯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50,251,223,000원
⑰ 조달특별회계	335,227,573,000원
⑱ 우편사업특별회계	4,039,397,785,000원
⑲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195,288,000,000원

- 제2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2015년도 계속비는 별첨「계속비」와 같다.
-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제5조 2015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명시이월비」와 같다.
- 제6조 201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8조 2015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 제9조 2015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민주택기금	13,000,000,000,000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03,000,000,000,000원
외국환평형기금	7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입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기동전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화력탄약사업·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성능개량사업(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은 제외한다)·대정부국외획득사업은 긴급소요, 환율변동, 반환금,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3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이외에는 지출 할 수 없다.
- 제12조의1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6,445,647,500원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에 따른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5년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 할 수 없다.
-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14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33,770,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4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0,020,000,000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78,881,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83,087,000,000원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96,874,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52,365,000,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225,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236,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77,982,000,000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78,881,000,000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87,236,000,000원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07,080,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0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 가. 총괄표

구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금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내국세 (Internal Taxes)	179,621,000	72.7
2. 관세 (Customs Duties)	10,550,600	4.3
3.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13,480,800	5.5
4. 교육세 (Educational Tax)	4,458,900	1.8
5.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139,100	0.5
6.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37,952,763	15.4
·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Issuance)	27,674,552	11.2
· 기타수입 (Others)	10,278,211	4.2
합계 (Total)	247,203,163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84,490,700	71.3	4,869,700	2.7
9,881,800	3.8	△668,800	△6.3
13,465,800	5.2	△15,000	△0.1
4,746,300	1.8	287,400	6.4
1,281,100	0.5	142,000	12.5
44,719,947	17.3	6,767,184	17.8
34,249,013	13.2	6,574,461	23.8
10,470,934	4.0	192,723	1.9
258,585,647	100.0	11,382,484	4.6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1. 국세 (Tax Total)	209,250,4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179,621,000
나. 관세 (Customs Duties)	10,550,600
다. 방위세 (Defense Tax)	0
라.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3,480,800
마. 교육세 (Educational Tax)	4,458,900
바.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	1,139,10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37,952,763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2,046,994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782,480
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991,604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88,012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92,843
바.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1,451
사.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647,515
아.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28,101,864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Floatation)	(27,674,552)
합 계 (Total)	247,203,163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13,865,700	4,615,300	2.2
184,490,700	4,869,700	2.7
9,881,800	△668,800	△6.3
0	0	0
13,465,800	△15,000	△0.1
4,746,300	287,400	6.4
1,281,100	142,000	12.5
44,719,947	6,767,184	17.8
1,145,637	△901,357	△44.0
5,865,666	83,186	1.4
2,337,853	1,346,249	135.8
306,972	18,960	6.6
73,899	△18,944	△20.4
1,732	281	19.4
443,789	△203,726	△31.5
34,544,400	6,442,536	22.9
(34,249,013)	(6,574,461)	(23.8)
258,585,647	11,382,484	4.6

## 나. 국세수입 내역 (Tax Revenues)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179,621,000
(1) 소득세 (Income Tax)	54,382,100
(가) 신고분 (Income Tax Not Withheld)	19,882,849
(나) 원천분 (Withheld Income Tax)	34,499,251
(2) 법인세 (Corporation Tax)	46,018,100
(3) 상속세 (Inheritance Tax)	4,625,900
(가) 상속세 (Inheritance Tax)	2,008,626
(나) 증여세 (Gift Tax)	2,617,274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58,454,500
(5)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5,981,900
(6)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3,989,000
(7) 인지세 (Stamp Tax)	692,600
(8) 기타내국세 (Other Internal Tax)	5,476,900
나. 관세 (Customs Duties)	10,550,6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13,480,8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4,458,900
마.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	1,139,100
합 계 (Total)	209,250,4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84,490,700	4,869,700	2.7
57,331,000	2,948,900	5.4
20,433,100	550,251	2.8
36,897,900	2,398,649	7.0
46,046,600	28,500	0.1
5,158,200	532,300	11.5
2,022,000	13,374	0.7
3,136,200	518,926	19.8
58,856,800	402,300	0.7
7,697,100	1,715,200	28.7
3,694,600	△294,400	△7.4
720,800	28,200	4.1
4,985,600	△491,300	△9.0
9,881,800	△668,800	△6.3
13,465,800	△15,000	△0.1
4,746,300	287,400	6.4
1,281,100	142,000	12.5
213,865,700	4,615,300	2.2

##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72	0	0	72
(02) 대통령경호실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67	0	0	67
(03) 국회 (National Assembly)	1,506	0	0	1,506
(04) 대법원 (Supreme Court)	574,650	0	0	574,650
(05)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448	0	0	448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1,250	0	0	1,250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4	0	0	4
(0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317	0	0	317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1,159	0	0	1,159
(10) 기획재정부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12,097,784	27,674,552	0	239,772,336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179,621,000	0	0	179,621,000
② 관세 (Customs Duties)	10,550,600	0	0	10,550,600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13,480,800	0	0	13,480,800
④ 교육세 (Educational Tax)	4,458,900	0	0	4,458,900
⑤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139,100	0	0	1,139,1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2,847,384	27,674,552	0	30,521,936
(11)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325,378	0	0	325,378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321,847	0	0	321,847
(13)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81,222	0	0	181,222
(14)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2,065	0	0	2,065
(15)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910,835	0	0	1,910,835
(16)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6,204	0	0	206,204
(17) 안전행정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41,963	0	0	41,963
(18)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47,677	0	0	47,677
(19)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2,901	0	0	22,901
(20)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35,247	0	0	235,247
(21)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394,459	0	0	394,459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75	0	0	75	3	0	0	3
70	0	0	70	3	0	0	3
1,836	0	0	1,836	330	0	0	330
600,920	0	0	600,920	26,270	0	0	26,270
16	0	0	16	△432	0	0	△432
649	0	0	649	△601	0	0	△601
5	0	0	5	1	0	0	1
354	0	0	354	37	0	0	37
1,159	0	0	1,159	0	0	0	0
215,412,390	34,249,013	0	249,661,403	3,314,606	6,574,461	0	9,889,067
184,490,700	0	0	184,490,700	4,869,700	0	0	4,869,700
9,881,800	0	0	9,881,800	△668,800	0	0	△668,800
13,465,800	0	0	13,465,800	△15,000	0	0	△15,000
4,746,300	0	0	4,746,300	287,400	0	0	287,400
1,281,100	0	0	1,281,100	142,000	0	0	142,000
1,546,690	34,249,013	0	35,795,703	△1,300,694	6,574,461	0	5,273,767
473,871	0	0	473,871	148,493	0	0	148,493
1,688,215	0	0	1,688,215	1,366,368	0	0	1,366,368
197,843	0	0	197,843	16,621	0	0	16,621
2,597	0	0	2,597	532	0	0	532
1,860,334	0	0	1,860,334	△50,501	0	0	△50,501
145,731	0	0	145,731	△60,473	0	0	△60,473
45,255	0	0	45,255	3,292	0	0	3,292
57,653	0	0	57,653	9,976	0	0	9,976
12,814	0	0	12,814	△10,087	0	0	△10,087
198,252	0	0	198,252	△36,995	0	0	△36,995
354,538	0	0	354,538	△39,921	0	0	△39,921

소 관 Agency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2)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185	0	0	185
(23)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58,413	0	0	58,413
(24)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0,158	0	0	10,158
(25)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02,977	0	0	102,977
(26)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03,828	0	0	103,828
(27)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3,513	0	0	3,513
(28)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0,267	0	0	10,267
(29)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	0	0	20
(30)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42,747	0	0	42,747
(31)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698,124	0	0	698,124
(32)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6,614	0	0	16,614
(33)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7,012	0	0	7,012
(34)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555	0	0	555
(35) 국세청 (National Tax Adm.)	915,083	0	0	915,083
(36) 관세청 (Customs Service)	26,881	0	0	26,881
(37) 통계청 (Statistics Korea)	2,798	0	0	2,798
(38)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165	0	0	165
(39)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02,964	0	0	102,964
(40) 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822,141	0	0	822,141
(41)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9,373	0	0	9,373
(42)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31,101	0	0	31,101
(43)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7,524	0	0	7,524
(44)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94,509	0	0	94,509
(45)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	87,278	0	0	87,278
(46)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3,467	0	0	3,467
(47) 해양경찰청 (National Maritime Police Adm.)	3,860	0	0	3,860
합계 (Total)	219,528,611	27,674,552	0	247,203,163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	합 계 Total
179	0	0	179	△6	0	0	△6
64,322	0	0	64,322	5,909	0	0	5,909
8,464	0	0	8,464	△1,694	0	0	△1,694
127,185	0	0	127,185	24,208	0	0	24,208
103,781	0	0	103,781	△47	0	0	△47
2,841	0	0	2,841	△672	0	0	△672
11,387	0	0	11,387	1,120	0	0	1,120
20	0	0	20	0	0	0	0
53,945	0	0	53,945	11,198	0	0	11,198
656,555	0	0	656,555	△41,569	0	0	△41,569
21,692	0	0	21,692	5,078	0	0	5,078
113	0	0	113	△6,899	0	0	△6,899
5,396	0	0	5,396	4,841	0	0	4,841
934,290	0	0	934,290	19,207	0	0	19,207
36,672	0	0	36,672	9,791	0	0	9,791
4,311	0	0	4,311	1,513	0	0	1,513
3,425	0	0	3,425	3,260	0	0	3,260
210,740	0	0	210,740	107,776	0	0	107,776
843,329	0	0	843,329	21,188	0	0	21,188
9,516	0	0	9,516	143	0	0	143
33,598	0	0	33,598	2,497	0	0	2,497
7,772	0	0	7,772	248	0	0	248
75,405	0	0	75,405	△19,104	0	0	△19,104
59,711	0	0	59,711	△27,567	0	0	△27,567
3,512	0	0	3,512	45	0	0	45
3,897	0	0	3,897	37	0	0	37
224,336,634	34,249,013	0	258,585,647	4,808,023	6,574,461	0	11,382,484

## 라. 성질별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by Objects)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11.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2,046,994
51. 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56,851
52. 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325,100
53. 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1,066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Others)	1,663,977
12.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782,480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Fine & Confiscation)	3,663,453
57. 변상금 및 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69,444
58. 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735,634
59. 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1,313,949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991,604
62. 병원수입 (Hospital Income)	8,038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2,552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719,914
66. 입학금 및 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208,064
67.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961
68. 실습수입 (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3,490
69. 잡수입 (Other)	48,585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145,637	△901,357	△44.0
58,212	1,361	2.4
361,600	36,500	11.2
549	△517	△48.5
725,276	△938,701	△56.4
5,865,666	83,186	1.4
3,649,146	△14,307	△0.4
105,633	36,189	52.1
753,581	17,947	2.4
1,357,306	43,357	3.3
2,337,853	1,346,249	135.8
9,444	1,406	17.5
2,428	△124	△4.9
724,492	4,578	0.6
1,535,037	1,326,973	637.8
961	0	0
3,407	△83	△2.4
62,084	13,499	27.8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88,012
51. 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457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4,605
65. 면허료 및 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229,159
69. 잡수입 (Other)	43,791
15.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92,843
71. 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6,795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85,894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153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1,451
77. 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1,451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647,515
84. 유가증권매각대 (Sales of State-holding Stocks)	647,515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28,101,864
91. 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427,312
94. 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27,674,552
합 계 (Total)	37,952,763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06,972	18,960	6.6
1,178	721	157.8
14,966	361	2.5
245,447	16,288	7.1
45,381	1,590	3.6
73,899	△18,944	△20.4
8,934	2,139	31.5
64,817	△21,077	△24.5
148	△5	△3.3
1,732	281	19.4
1,732	281	19.4
443,789	△203,726	△31.5
443,789	△203,726	△31.5
34,544,400	6,442,536	22.9
295,387	△131,925	△30.9
34,249,013	6,574,461	23.8
44,719,947	6,767,184	17.8

##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52,897,349	21.4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4,512,361	5.9
3.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2,353,662	1.0
4. 국방 (National Defense)	35,893,113	14.5
5. 교육 (Education)	50,199,315	20.3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2,239,954	0.9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656,408	1.5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32,868,157	13.3
9. 보건 (Health)	7,149,213	2.9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7,040,452	2.8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5,563,284	2.3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17,748,485	7.2
13. 통신 (Communication)	306,990	0.1
14.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5,939,501	2.4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5,299,519	2.1
16. 예비비 (Reserve Funds)	3,535,400	1.4
합 계 (Total)	247,203,163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53,512,995	20.7	615,646	1.2
15,666,925	6.1	1,154,564	8.0
2,420,214	0.9	66,552	2.8
37,656,047	14.6	1,762,934	4.9
50,543,364	19.5	344,049	0.7
2,514,678	1.0	274,724	12.3
3,997,457	1.5	341,049	9.3
36,624,309	14.2	3,756,152	11.4
7,562,355	2.9	413,142	5.8
8,012,806	3.1	972,354	13.8
5,655,007	2.2	91,723	1.6
19,271,877	7.5	1,523,392	8.6
304,755	0.1	△2,235	△0.7
6,104,834	2.4	165,333	2.8
5,731,578	2.2	432,059	8.2
3,006,446	1.2	△528,954	△15.0
258,585,647	100.0	11,382,484	4.6

##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1. 대통령실 (Office of the President)	84,134
2. 대통령경호실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79,370
3. 국회 (National Assembly)	504,177
4. 대법원 (Supreme Court)	1,271,421
5.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39,023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329,496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3,883
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107,177
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471,200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Prime Minister's Office)	540,895
11. 기획재정부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6,051,198
● 예비비 (Contingency)	3,535,400
● 일반경비 (General Adm.)	12,515,798
12.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5,406,156
13.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49,986,534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92,360
15.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337,420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2,680,152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5,195,966
18. 안전행정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9,989,374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1,658,883
2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4,657,936
2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807,264
22.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29,554,052
23.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3,533,584
24.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47,824
25.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82,72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88,688	4,554	5.4
80,106	736	0.9
527,601	23,424	4.6
1,316,322	44,901	3.5
37,729	△1,294	△3.3
287,115	△42,381	△12.9
25,865	1,982	8.3
111,774	4,597	4.3
478,236	7,036	1.5
514,562	△26,333	△4.9
17,003,214	952,016	5.9
3,006,446	△528,954	△15.0
13,996,768	1,480,970	11.8
5,845,709	439,553	8.1
50,325,565	339,031	0.7
2,044,366	52,006	2.6
349,983	12,563	3.7
2,885,181	205,029	7.6
26,442,028	1,246,062	4.9
39,655,115	△334,259	△0.8
1,833,758	174,875	10.5
5,396,011	738,075	15.8
2,773,378	△33,886	△1.2
33,086,411	3,532,359	12.0
3,853,274	319,690	9.0
2,009,085	△38,739	△1.9
284,215	1,495	0.5

소 관 Agency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2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9,395,841
2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402,223
28. 법제처 (Ministry of Legislation)	29,070
29.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4,261,395
30.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25,300
31.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4,560
32.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50,699
33.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84,565
34.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118,270
35.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69,477
36.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97,569
37. 국세청 (National Tax Adm.)	1,473,503
38. 관세청 (Customs Service)	482,555
40. 통계청 (Statistics Korea)	274,451
41.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187,493
42.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0,509,653
43. 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8,698,595
44.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657,243
45.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544,281
46.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704,618
47.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376,201
48.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	2,643,310
50.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349,041
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Multi 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679,193
52. 해양경찰청 (National Maritime Police Adm.)	1,113,393
53.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 Investment Agency)	18,463
합 계 (Total)	247,203,163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0,777,108	1,381,267	7.1
2,609,201	206,978	8.6
30,152	1,082	3.7
4,436,439	175,044	4.1
374,238	48,938	15.0
26,926	2,366	9.6
55,607	4,908	9.7
103,973	19,408	23.0
1,220,317	102,047	9.1
64,926	△4,551	△6.6
101,455	3,886	4.0
1,535,074	61,571	4.2
481,386	△1,169	△0.2
387,209	112,758	41.1
200,056	12,563	6.7
11,013,963	504,310	4.8
9,255,695	557,100	6.4
840,295	183,052	27.9
607,173	62,892	11.6
744,956	40,338	5.7
1,565,740	189,539	13.8
2,739,571	96,261	3.6
385,689	36,648	10.5
491,613	△187,580	△27.6
1,223,958	110,565	9.9
57,635	39,172	212.2
258,585,647	11,382,484	4.6

## 다. 기능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52,897,349	21.4
1) 입법및선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833,673	0.3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543,165	0.2
3) 지방행정·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36,093,258	14.6
4) 재정·금융 (Budget & Finance)	12,992,297	5.3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681,709	0.3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1,753,247	0.7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4,512,361	5.9
1) 법원 및 헌재 (Law Court & Constitutional Court)	1,310,444	0.5
2) 법무 및 검찰 (Justice & Prosecution)	2,680,152	1.1
3) 경찰 (Police)	8,721,734	3.5
4) 해경 (Maritime Police)	1,106,750	0.4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693,281	0.3
3.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2,353,662	1.0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361,303	0.1
2) 외교·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1,992,360	0.8
4. 국방 (National Defense)	35,893,113	14.5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14,840,833	6.0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10,355,133	4.2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Improvement)	10,509,653	4.3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187,493	0.1
5. 교육 (Education)	50,199,315	20.3
1) 유아및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41,465,434	16.8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8,366,051	3.4
3) 평생·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255,427	0.1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12,403	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53,512,995	20.7	615,646	1.2
814,716	0.3	△18,957	△2.3
516,680	0.2	△26,486	△4.9
35,268,272	13.6	△824,986	△2.3
14,245,978	5.5	1,253,681	9.6
716,790	0.3	35,081	5.1
1,950,559	0.8	197,312	11.3
15,666,925	6.1	1,154,564	8.0
1,354,051	0.5	43,607	3.3
2,885,181	1.1	205,029	7.6
9,277,360	3.6	555,626	6.4
1,213,890	0.5	107,140	9.7
936,442	0.4	243,162	35.1
2,420,214	0.9	66,552	2.8
375,848	0.1	14,545	4.0
2,044,366	0.8	52,006	2.6
37,656,047	14.6	1,762,935	4.9
15,581,074	6.0	740,241	5.0
10,860,954	4.2	505,821	4.9
11,013,963	4.3	504,310	4.8
200,056	0.1	12,563	6.7
50,543,364	19.5	344,049	0.7
39,565,608	15.3	△1,899,827	△4.6
10,602,334	4.1	2,236,283	26.7
273,457	0.1	18,030	7.1
101,965	0.0	△10,438	△9.3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2,239,954	0.9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1,460,513	0.6
2) 관광 (Tourism)	5,436	0.0
3) 체육 (Sports)	4,477	0.0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544,281	0.2
5) 문화및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225,247	0.1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656,408	1.5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122,824	0.0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3,533,584	1.4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32,868,157	13.3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8,824,503	3.6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1,580,034	0.6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2,661,222	1.1
4) 보육·가족 및 여성 (Childcare, Family & Women)	5,501,932	2.2
5) 노인·청소년 (The Aged & Youth)	6,434,823	2.6
6) 노동 (Labor)	2,047,824	0.8
7)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4,261,395	1.7
8) 주택 (Housing)	840,979	0.3
9)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715,445	0.3
9. 보건 (Health)	7,149,213	2.9
1) 보건의료 (Healthcare)	885,109	0.4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5,947,356	2.4
3) 식품의약품안전 (Food & Drug Safety)	316,748	0.1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7,040,452	2.8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5,371,106	2.2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376,201	0.6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293,144	0.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514,678	1.0	274,724	12.3
1,583,617	0.6	123,104	8.4
26,019	0.0	20,583	378.6
3,597	0.0	△880	△19.7
607,173	0.2	62,892	11.6
294,271	0.1	69,025	30.6
3,997,457	1.5	341,049	9.3
144,183	0.1	21,359	17.4
3,853,274	1.5	319,690	9.0
36,624,309	14.2	3,756,152	11.4
9,471,453	3.7	646,950	7.3
2,161,633	0.8	581,599	36.8
3,045,470	1.2	384,248	14.4
5,176,590	2.0	△325,342	△5.9
8,875,960	3.4	2,441,137	37.9
2,009,085	0.8	△38,740	△1.9
4,436,439	1.7	175,044	4.1
921,831	0.4	80,852	9.6
525,849	0.2	△189,596	△26.5
7,562,355	2.9	413,142	5.8
972,269	0.4	87,160	9.8
6,225,629	2.4	278,273	4.7
364,457	0.1	47,709	15.1
8,012,806	3.1	972,354	13.8
6,150,748	2.4	779,641	14.5
1,565,740	0.6	189,540	13.8
296,318	0.1	3,174	1.1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5,563,284	2.3
1) 산업금융지원 (Support for Industry Finance)	341,600	0.1
2) 산업기술지원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707,914	0.3
3) 무역 및 투자유치 (Trade & Investment Inducement)	575,162	0.2
4) 산업진흥·고도화 (Promotion & Development of Industry)	2,455,641	1.0
5) 에너지 및 자원개발 (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253,685	0.1
6) 산업·중소기업일반 (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1,229,282	0.5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17,748,485	7.2
1) 도로 (National Road)	8,279,769	3.3
2) 철도 (Railroad)	6,150,866	2.5
3) 도시철도 (City Railroad)	649,886	0.3
4) 해운·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243,648	0.5
5) 항공·공항 (Aviation & Airport)	12,687	0.0
6) 물류 등기타 (Distribution & Others)	1,411,629	0.6
13. 통신 (Communication)	306,990	0.1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306,990	0.1
14.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5,939,501	2.4
1) 수자원 (Water Resources)	2,383,001	1.0
2) 지역 및 도시 (Region & City)	3,528,265	1.4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28,235	0.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5,299,519	2.1
1) 기술개발 (Technology Development)	2,050,190	0.8
2)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2,767,551	1.1
3)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481,777	0.2
16. 예비비 (Reserve Funds)	3,535,400	1.4
1) 예비비 (Reserve Funds)	3,535,400	1.4
합 계 (Total)	247,203,163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5,655,007	2.2	91,723	1.6
182,333	0.1	△159,267	△46.6
756,375	0.3	48,461	6.8
551,373	0.2	△23,789	△4.1
2,805,625	1.1	349,984	14.3
0	0.0	△253,685	△100.0
1,359,301	0.5	130,019	10.6
19,271,877	7.5	1,523,392	8.6
8,947,473	3.5	667,704	8.1
6,762,415	2.6	611,549	9.9
711,576	0.3	61,690	9.5
1,372,390	0.5	128,742	10.4
12,984	0.0	297	2.3
1,465,039	0.6	53,410	3.8
304,755	0.1	△2,235	△0.7
304,755	0.1	△2,235	△0.7
6,104,834	2.4	165,333	2.8
2,273,111	0.9	△109,890	△4.6
3,792,988	1.5	264,723	7.5
38,735	0.0	10,500	37.2
5,731,578	2.2	432,060	8.2
2,190,608	0.8	140,418	6.8
3,006,501	1.2	238,950	8.6
534,469	0.2	52,692	10.9
3,006,446	1.2	△528,954	△15.0
3,006,446	1.2	△528,954	△15.0
258,585,647	100.0	11,382,484	4.6

## 라. 성질별 세출내역 (Expenditure by Functions)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26,685,894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26,685,894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18,192,139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3,698,598
220 여비 (Travel Expenses)	564,843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866,618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178,330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729,501
260 연구개발비 (R & D Expenses)	1,154,248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138,285,781
310 보전금 (Compensation)	12,240,676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4,630,398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101,187,048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1,205,842
350 출연금 (Funding)	19,021,817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14,850,666
410 토지매입비 (Land Assets)	426,927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4,888,454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9,099,712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28,396
450 융자금 (Lending)	0
460 출자금 (Investment)	407,178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7,902,980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7,902,980
600 전출금등 (Transfers)	37,745,578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37,745,578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3,540,126
71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3,540,126
합 계 (Total)	247,203,163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8,384,236	1,698,343	6.4
28,384,236	1,698,343	6.4
20,498,533	2,306,394	12.7
15,858,220	2,159,622	15.8
583,570	18,726	3.3
880,324	13,706	1.6
180,223	1,894	1.1
1,782,750	53,249	3.1
1,213,446	59,198	5.1
141,017,504	2,731,722	2.0
12,826,736	586,060	4.8
4,794,437	164,039	3.5
101,979,035	791,987	0.8
1,194,647	△11,195	△0.9
20,222,649	1,200,832	6.3
15,775,391	924,726	6.2
492,191	65,265	15.3
5,422,713	534,260	10.9
9,368,746	269,035	3.0
35,610	7,215	25.4
0	0	0
456,130	48,952	12.0
8,837,896	934,916	11.8
8,837,896	934,916	11.8
41,062,844	3,317,266	8.8
41,062,844	3,317,266	8.8
3,009,243	△530,883	△15.0
3,009,243	△530,883	△15.0
258,585,647	11,382,484	4.6

## 마. 201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계 (Total)	보수(110-01) Wages	기타직보수(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일용임금(110-03) Daily Wages	연가보상비(110-04)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2,583,250	2,398,164	80,639	64,577	39,869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0,381,510	9,954,663	269,348	6,539	150,960
3.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429,578	304,258	116,960	6,629	1,731
4. 국방 (National Defense)	10,586,890	10,313,018	98,704	6,522	168,646
5. 교육 (Education)	1,879,629	1,738,092	127,269	5,293	8,974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366,872	248,310	107,244	7,432	3,886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127	0	0	127	0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612,699	457,827	132,986	13,997	7,890
9. 보건 (Health)	118,802	100,562	16,245	257	1,738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618,273	484,702	93,685	31,864	8,023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78,886	162,588	13,658	318	2,323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	409,818	365,801	37,654	457	5,905
13. 통신 (Communication)	81,243	71,858	7,967	135	1,283
14.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21,318	13,789	4,420	2,870	239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115,341	100,014	13,148	450	1,730
16. 예비비 (Reserve Funds)	0	0	0	0	0
합 계 (Total)	28,384,236	26,713,646	1,119,927	147,466	403,198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물건비(200) Goods Service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전출금등(600) Transfers	예비비및기타 (700) Contingency & Others	합 계 Total
2,498,044	36,394,299	423,042	8,767,634	2,844,867	1,860	53,512,995
3,272,848	1,088,184	801,292	0	122,565	525	15,666,925
482,798	1,311,064	53,632	23,142	120,000	0	2,420,214
9,877,980	3,045,078	11,636,461	0	2,509,639	0	37,656,047
1,690,898	45,713,834	600,851	2,860	655,127	164	50,543,364
436,178	1,330,438	244,840	0	136,310	40	2,514,678
24,816	64,240	55,000	0	3,853,274	0	3,997,457
474,870	31,566,097	75,674	198	3,894,569	202	36,624,309
241,260	6,800,992	73,586	0	327,715	0	7,562,355
570,373	852,017	516,340	0	5,455,797	6	8,012,806
115,861	4,014,284	86,097	0	1,259,878	1	5,655,007
334,993	1,933,366	199,175	44,062	16,350,463	0	19,271,877
72,876	128,723	14,676	0	7,236	0	304,755
195,465	1,633,781	787,009	0	3,467,262	0	6,104,834
209,273	5,141,108	207,714	0	58,142	0	5,731,578
0	0	0	0	0	3,006,446	3,006,446
20,498,533	141,017,504	15,775,391	8,837,896	41,062,844	3,009,243	258,585,647

## 바. 201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구분 Classification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방 National Defense	교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2,583,250	10,381,510	429,578	10,586,890	1,879,629	366,872	127
110 보수 (Wages)	2,398,164	9,954,663	304,258	10,313,018	1,738,092	248,310	0
110 기타직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80,639	269,348	116,960	98,704	127,269	107,244	0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64,577	6,539	6,629	6,522	5,293	7,432	127
110 연가보상비 (Slipends for non-used vacations)	39,869	150,960	1,731	168,646	8,974	3,886	0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498,044	3,272,848	482,798	9,877,980	1,690,898	436,178	24,816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391,747	1,994,193	379,941	8,486,447	1,627,829	370,872	13,921
220 여비 (Travel Expenses)	176,211	99,464	49,799	146,944	6,064	13,092	241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525,049	165,811	3,035	179,375	0	0	0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39,148	35,774	23,575	57,608	1,755	3,540	20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213,142	943,688	12,667	477,180	33,836	12,542	376
260 연구개발비 (R&D Expenses)	152,747	33,919	13,779	530,425	21,415	36,132	10,258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36,394,299	1,088,184	1,311,064	3,045,078	45,713,834	1,330,438	64,240
310 보전금 (Compensation)	73,819	76,201	83,206	684,025	55,418	14,885	10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128,327	212,631	58,089	190,119	178,327	782,668	21,580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35,223,538	667,422	11,847	3,510	39,411,197	445,733	16,77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612,699	118,802	618,273	178,886	409,818	81,243	21,318	115,341	-	28,384,236
457,827	100,562	484,702	162,588	365,801	71,858	13,789	100,014	-	26,713,646
132,986	16,245	93,685	13,658	37,654	7,967	4,420	13,148	-	1,119,927
13,997	257	31,864	318	457	135	2,870	450	-	147,466
7,890	1,738	8,023	2,323	5,905	1,283	239	1,730	-	403,198
474,870	241,260	570,373	115,861	334,993	72,876	195,465	209,273	-	20,498,533
376,642	137,104	501,530	74,640	184,130	57,596	92,841	168,787	-	15,858,220
23,975	9,518	25,662	11,760	10,555	2,919	1,926	5,438	-	583,570
0	0	0	0	0	3,310	0	3,744	-	880,324
6,264	770	2,550	3,270	2,621	791	394	2,143	-	180,223
27,171	5,110	21,796	8,374	16,348	3,522	991	6,006	-	1,782,750
40,817	88,759	18,834	17,817	121,338	4,738	99,312	23,155	-	1,213,446
31,566,097	6,800,992	852,017	4,014,284	1,933,366	128,723	1,633,781	5,141,108	-	141,017,504
5,601,109	6,229,014	7,710	891	151	79	3	213	-	12,826,736
892,226	107,510	245,290	643,472	501,706	21,930	742,688	67,873	-	4,794,437
24,609,130	217,830	395,017	43,630	42,295	0	868,380	22,733	-	101,979,035

구분 Classification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방 National Defense	교육 Education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144,144	3,641	450,414	402,802	77,791	3,192	1,150
350 출연금 (Funding)	824,472	128,289	707,507	1,764,622	5,991,101	83,960	24,726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423,042	801,292	53,632	11,636,461	600,851	244,840	55,000
410 토지매입비 (Land Assets)	0	7,416	2,124	52,653	0	42,067	0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73,577	434,541	29,947	3,131,168	409,435	111,629	53,607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75,799	347,343	21,541	8,451,272	191,217	40,752	1,393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3,666	11,993	20	1,369	200	392	0
460 출자금 (Investment)	170,000	0	0	0	0	50,000	0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8,767,634	0	23,142	0	2,860	0	0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8,767,634	0	23,142	0	2,860	0	0
600 전출금등 (Transfers)	2,844,867	122,565	120,000	2,509,639	655,127	136,310	3,853,274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2,844,867	122,565	120,000	2,509,639	655,127	136,310	3,853,274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1,860	525	0	0	164	40	0
71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1,860	525	0	0	164	40	0
합계 (Total)	53,512,995	15,666,925	2,420,214	37,656,047	50,543,364	2,514,678	3,997,457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32,908	5,988	52,649	2,926	3,495	4,164	1,500	7,882	-	1,194,647
430,723	240,650	151,350	3,323,364	1,385,719	102,550	21,210	5,042,406	-	20,222,649
75,674	73,586	516,340	86,097	199,175	14,676	787,009	207,714	-	15,775,391
0	2,000	82,824	21,713	5,011	0	136,244	140,140	-	492,191
20,497	18,827	355,465	32,848	179,149	8,698	508,241	55,086	-	5,422,713
17,730	22,334	61,020	4,019	14,036	5,828	2,244	12,218	-	9,368,746
13,348	425	2,032	517	979	150	250	270	-	35,610
24,100	30,000	15,000	27,000	0	0	140,030	0	-	456,130
198	0	0	0	44,062	0	0	0	-	8,837,896
198	0	0	0	44,062	0	0	0	-	8,837,896
3,894,569	327,715	5,455,797	1,259,878	16,350,463	7,236	3,467,262	58,142	-	41,062,844
3,894,569	327,715	5,455,797	1,259,878	16,350,463	7,236	3,467,262	58,142	-	41,062,844
202	0	6	1	0	0	0	0	3,006,446	3,009,243
202	0	6	1	0	0	0	0	3,006,446	3,009,243
36,624,309	7,562,355	8,012,806	5,655,007	19,271,877	304,755	6,104,834	5,731,578	3,006,446	258,585,647

# 0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구 분 Classification	2014년도 예산 FY2014 Budget
(1) 농어촌구조개선 (Agri.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12,944,189
(2) 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16,302,557
(3) 등기 (Registration S/A)	287,906
(4) 교도작업 (Prison Operation S/A)	56,741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Management S/A)	5,490,394
(6) 환경개선 (Environment Reconstruction S/A)	4,877,040
(7) 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774,648
(8) 주한미군기지이전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stitution Relocation S/A)	641,778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S/A)	698,661
(10) 국방·군사시설이전 (Defense Military Installations Relocation S/A)	355,961
(11) 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y S/A)	817,380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181,078
(13) 광역지역발전 (Regional Development S/A)	9,361,289
(14) 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1,498,285
(15) 책임운영기관 (Agency)	867,274
(16) 조달 (Government Supply S/A)	474,850
(17) 우편사업 (Postal Services S/A)	3,803,718
(18) 우체국예금 (Postal Savings S/A)	3,055,552
총 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62,489,30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5년도 예산 FY2015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1,611,908	△1,332,281	△10.3
17,203,427	900,870	5.5
303,880	15,974	5.5
57,360	619	1.1
5,951,909	461,515	8.4
5,066,725	189,685	3.9
813,165	38,517	5.0
775,778	134,000	20.9
491,985	△206,676	△29.6
353,472	△2,489	△0.7
1,075,983	258,603	31.6
94,130	△86,948	△48.0
10,338,940	977,651	10.4
1,542,598	44,313	3.0
950,251	82,977	9.6
335,228	△139,622	△29.4
4,039,398	235,680	6.2
3,195,288	139,736	4.6
64,201,424	1,712,123	2.7

# 0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계속비연부액			
			2007	2008	2009	2010
	2014 예 산	23,635,432,400	333,500,000	653,400,000	2,351,900,000	2,617,300,000
	2015 예 산	27,952,278,000	333,500,000	653,400,000	2,351,900,000	2,617,300,000
	1. 지역간선국도3차건설					
	2014 예 산	3,385,595,000	333,500,000	406,000,000	607,400,000	584,900,000
	2015 예 산	3,381,451,000	333,500,000	406,000,000	607,400,000	584,900,000
	2. 지역간선국도4차건설					
	2014 예 산	2,777,913,000	-	247,400,000	438,100,000	403,500,000
	2015 예 산	2,744,848,000	-	247,400,000	438,100,000	403,500,000
	3. 지역간선국도5차건설					
	2014 예 산	4,684,232,000	-	-	555,700,000	573,000,000
	2015 예 산	4,515,819,000	-	-	555,700,000	573,000,000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도 교통부)	4. 물류간선1차건설					
	2014 예 산	3,144,512,000	-	-	480,700,000	513,400,000
	2015 예 산	3,296,846,000	-	-	480,700,000	513,400,000
	5. 지역간선국도6차건설					
	2014 예 산	2,247,246,700	-	-	-	152,500,000
	2015 예 산	2,203,797,000	-	-	-	152,500,000
	6. 지역간선국도7차건설					
	2014 예 산	1,578,640,860	-	-	-	-
	2015 예 산	1,732,243,000	-	-	-	-

(단위 :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622,394,000	2,996,735,000	3,511,997,900	3,083,944,000	2,963,543,200	1,725,142,400	775,575,900	-	-
2,622,394,000	2,996,735,000	3,511,997,900	3,083,944,000	4,197,679,000	2,872,160,800	2,085,970,740	576,572,560	48,724,000
484,804,000	374,730,000	286,759,000	177,837,000	129,665,000	-	-	-	-
484,804,000	374,730,000	286,759,000	177,837,000	125,521,000	-	-	-	-
405,329,000	393,515,000	379,865,000	294,610,000	215,594,000	-	-	-	-
405,329,000	393,515,000	379,865,000	294,610,000	182,529,000	-	-	-	-
630,000,000	595,301,000	760,995,000	717,437,000	632,389,400	219,409,600	-	-	-
630,000,000	595,301,000	760,995,000	717,437,000	628,825,000	54,561,000	-	-	-
535,531,000	459,705,000	528,564,000	299,930,000	217,409,000	109,273,000	-	-	-
535,531,000	459,705,000	528,564,000	299,930,000	179,547,000	159,953,000	139,516,000	-	-
171,730,000	196,602,000	297,491,900	344,800,000	413,037,800	449,259,600	221,825,400	-	-
171,730,000	196,602,000	297,491,900	344,800,000	355,846,000	449,259,600	235,567,500	-	-
-	276,882,000	379,194,000	353,534,000	288,884,600	220,092,600	60,053,660	-	-
-	276,882,000	379,194,000	353,534,000	309,539,000	220,092,600	193,001,400	-	-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계속비연부액			
			2007	2008	2009	2010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 교통부)	7. 지역간선국도8차건설					
	2014 예산	1,689,427,840	-	-	-	-
	2015 예산	1,971,868,000	-	-	-	-
	8. 동흥천~양양 고속도로					
	2014 예산	-	-	-	-	-
	2015 예산	339,063,000	-	-	-	-
	9. 성남-여주복선전철					
	2014 예산	1,407,563,000	-	-	-	-
	2015 예산	1,457,500,000	-	-	-	-
	10. 진주-광양복선전철					
	2014 예산	739,280,000	-	-	-	-
	2015 예산	750,800,000	-	-	-	-
	11. 익산-대야복선전철					
	2014 예산	-	-	-	-	-
	2015 예산	310,209,000	-	-	-	-
	12.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2014 예산	-	-	-	-	-
	2015 예산	434,824,000	-	-	-	-
	13. 울산신항인입철도					
	2014 예산	-	-	-	-	-
2015 예산	192,415,000	-	-	-	-	
14.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2014 예산	-	-	-	-	-	
2015 예산	139,784,000	-	-	-	-	

(단위 :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	196,500,000	255,000,000	299,892,400	444,338,600	493,696,840	-	-
-	-	196,500,000	255,000,000	301,530,000	444,338,600	493,696,840	280,802,560	-
-	-	-	-	-	-	-	-	-
-	-	-	-	141,587,000	130,000,000	67,476,000	-	-
-	230,000,000	360,000,000	320,000,000	387,391,000	110,172,000	-	-	-
-	230,000,000	360,000,000	320,000,000	393,300,000	154,200,000	-	-	-
-	140,000,000	170,000,000	200,000,000	229,280,000	-	-	-	-
-	140,000,000	170,000,000	200,000,000	200,000,000	40,800,000	-	-	-
-	-	-	-	-	-	-	-	-
-	-	-	-	93,000,000	72,403,000	72,403,000	72,403,000	-
-	-	-	-	-	-	-	-	-
-	-	-	-	130,400,000	101,475,000	101,475,000	101,474,000	-
-	-	-	-	-	-	-	-	-
-	-	-	-	30,000,000	32,483,000	32,483,000	48,725,000	48,724,000
-	-	-	-	-	-	-	-	-
-	-	-	-	42,000,000	32,595,000	32,595,000	32,594,000	-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계속비연부액			
			2007	2008	2009	2010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 교통부)	15. 원주-강릉 복선전철					
	2014 예산	-	-	-	-	-
	2015 예산	2,420,574,000	-	-	-	-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토 교통부)	16. 용산-문산복선전철					
	2014 예산	983,425,000	-	-	170,000,000	280,000,000
	2015 예산	997,960,000	-	-	170,000,000	280,000,000
	17. 수원-인천복선전철					
	2014 예산	997,597,000	-	-	100,000,000	110,000,000
	2015 예산	1,062,277,000	-	-	100,000,000	110,000,000

(단위 :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	-	-	-	-	-	-	-
-	-	-	-	920,000,000	830,000,000	630,000,000	40,574,000	-
250,000,000	190,000,000	77,629,000	15,796,000	-	-	-	-	-
250,000,000	190,000,000	77,629,000	15,796,000	14,535,000	-	-	-	-
145,000,000	140,000,000	75,000,000	105,000,000	150,000,000	172,597,000	-	-	-
145,000,000	140,000,000	75,000,000	105,000,000	149,520,000	150,000,000	87,757,000	-	-

# 05

##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단위 : 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4예산	2015예산	증(△)감
1. 국 방 부	소 계	28,500,000	-	△28,500,000
	● 군사시설개선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28,500,000	-	△28,500,000
2. 방위사업청	소 계	1,200,000	-	△1,200,000
	● 패트리엇 성능개량	1,200,000	-	△1,200,000

## 06

##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단위 : 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4예산	2015예산	증(△)감
합 계		(\$564,037,375) 2,354,612,197	(\$444,563,969) 1,380,484,203	(△\$119,473,406) △974,127,994
<b>I. 일반회계</b>		<b>(\$564,037,375)</b> <b>1,854,612,197</b>	<b>(\$444,563,969)</b> <b>1,380,484,203</b>	<b>(△\$119,473,406)</b> <b>△474,127,994</b>
1. 국방부	소 계	(\$564,037,375) 1,781,212,197	(\$444,563,969) 1,278,184,203	(△\$119,473,406) △503,027,994
	● 급식 및 피복	285,277,062	168,919,433	△116,357,629
	● 군수지원및협력	(\$564,037,375) 1,495,935,135	(\$444,563,969) 1,109,264,770	(△\$119,473,406) △386,670,365
2. 해양경찰청	● 대형함정	73,400,000	102,300,000	28,900,000
<b>II. 특별회계</b>		<b>(\$0)</b> <b>500,000,000</b>	<b>(\$0)</b> <b>-</b>	<b>(\$0)</b> <b>△500,000,000</b>
1.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소 계	500,000,000	-	△500,000,000
	● 일반국도 건설	400,000,000	-	△400,000,000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0,000,000	-	△100,000,000

[www.mosf.go.kr](http://www.mosf.go.kr)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제2장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01

##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기금(Employment Insurance Fund)</li> <li>- 공무원연금기금(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li> <li>- 국민연금기금(National Pension Fund)</li> <li>- 군인연금기금(Military Pension Fund)</li> <li>-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li> </ul>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자금관리기금(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li> <li>- 공적자금상환기금(Public Fund Repayment Fund)</li> <li>- 복권기금(Lottery Fund)</li> <li>- 양곡증권정리기금(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li> <li>- 외국환평형기금(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li> </ul>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신용보증기금(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li> <li>-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li> <li>-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li> <li>-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li> <li>- 무역보험기금(Korea Trade Insurance Fund)</li> <li>-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li> <li>-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li> <li>-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li> </ul>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진흥기금(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li> <li>- 관광진흥개발기금(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li> <li>- 국민건강증진기금(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li> <li>-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li> <li>- 국민체육진흥기금(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li> <li>- 국유재산관리기금(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li> <li>- 국제교류기금(Korea Foundation Fund)</li> <li>- 군인복지기금(Military Welfare Fund)</li> <li>- 근로복지진흥기금(Labour Welfare Promotion Fund)</li> <li>- 금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li> <li>- 낙동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li> <li>-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li> </ul>

구 분 Classification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5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 농지관리기금(Farmland Management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문화재보호기금(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방송통신발전기금(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범죄피해자보호기금(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보훈기금(Merit Reward Fund)
	- 사학진흥기금(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 석면피해구제기금(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 수산발전기금(Fisheries Development Fund)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 Independence Fighters)
	- 언론진흥기금(Korea Press Fund)
	- 여성발전기금(Women's Development Fund)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 영화발전기금(Film Development Fund)
	- 원자력연구개발기금(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 응급의료기금(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 임금채권보장기금(Wage Claim Guarantee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Support Fund)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전력산업기반기금(Electric Power Industry Fund)
	- 정보통신진흥기금(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지역신문발전기금(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청소년육성기금(Youth Supporting Fund)
	- 축산발전기금(Livestock Development Fund)
	- 한강수계관리기금(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합 계	총 64개 기금

#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 (Size of Fund Management)



단위 : 조원(In Trillion KRW)

구 분 Classification		운용규모 Fund Operation		
		2014년도 FY 2014	2015년도 FY 2015	증감률(%) Rate
운용규모(Total)		515.4	504.7	△2.1
수 입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138.2	143.4	3.8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115.1	102.2	△11.3
	● 차입금(Borrowings)	114.5	119.7	4.6
	●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147.6	139.4	△5.6
지 출	● 사업비(Project Cost)	94.5	104.7	10.8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47.2	51.4	9.0
	– 금융성·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8.0	11.1	38.3
	– 사업성(Project Fund)	39.3	42.2	7.4
	●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2.1	2.2	1.8
	● 정부내부지출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240.7	224.0	△6.9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178.1	173.8	△2.4

# 0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88,732	707	-	22,822	112,261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14,905	520,575	1,026,833	755	1,563,067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33,157	35,214	205	30,152	198,729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3,959	28,642	-	-	32,600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150	2,208	-	50	2,408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8,495	405	-	375	9,275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24,933	5,209	-	2,619	32,762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543,965	100	-	428,851	972,916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160,488	14,076	105,000	251,880	531,443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1,492	582	-	783	12,857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10,287	-	-	1,033	11,320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483	10	-	214	708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6,064	7	-	3,111	9,182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5,400	23,327	-	1,000	29,727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102	399	-	1,659	3,160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 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1,100	-	-	70	1,170
기술신용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10,484	54	-	14,460	24,99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299	-	-	48	2,347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122	6,298	-	7,794	15,21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3,116	268	-	11,750	15,13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5,871	816	-	1,840	28,52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	497	494	-	24	1,01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278	365	-	1,162	1,80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657	4,343	-	20	5,020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1,072	490	-	1,862	13,424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400	7,664	-	171	9,236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11,045	700	-	19,328	31,072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2,424	672	-	2,985	6,081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86	1,067	-	266	1,42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0,146	4,818	-	10,320	25,284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7,821	1,086	-	2,567	11,47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1	860	-	54	915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계 Total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2,288	205	-	4,285	6,779
복권기금 (Lottery Fund)	35,284	6,115	-	3,425	44,8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45,498	6,552	-	53,185	105,236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2,274	1,422	-	1,200	4,89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376	180	-	2,813	3,36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1,519	400	-	113	2,03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66,641	3,435	-	49,213	119,289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127	30	-	288	44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154	20,969	-	-	21,124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6,021	293	-	2,119	8,43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 Independence Fighters)	91	37	-	528	656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2,494	624	-	32,624	55,742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3	6,943	-	89	7,034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129	-	-	284	413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68	1,760	-	77	1,90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822	-	-	130	952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1,149	14	-	2,327	3,490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 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22,771	-	32,000	13,584	68,354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16,758	287,705	7,210	353,901	665,57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2,059	-	-	506	2,566
응급의료기금 (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141	2,174	-	108	2,423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4,905	354	-	7,066	12,32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TA Support Fund)	1,456	5,067	-	501	7,0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3,537	250	-	2,744	6,531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24,510	2,433	-	11,122	38,066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7,309	2,580	-	541	10,43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10,578	-	-	29,760	40,33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40,099	5,939	26,233	265	72,535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5	100	-	23	128
청소년육성기금 (Youth Supporting Fund)	163	770	-	161	1,094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7,231	3,720	-	547	11,498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692	-	-	388	5,079

# 0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76,631	1,023	-	34,607	112,261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34,049	1	1,528,596	422	1,563,067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53,220	794	716	44,000	198,729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1,088	12	28,953	2,546	32,600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771	9	1,467	162	2,408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9,074	5	-	196	9,275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27,356	1	1,022	4,382	32,762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168,645	4,130	-	800,141	972,916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161,158	5	267,318	102,962	531,443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2,199	261	-	397	12,857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9,763	19	-	1,537	11,320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372	117	100	119	708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612	-	-	3,571	9,182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28,582	5	-	1,139	29,727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338	122	66	1,634	3,160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1,065	21	-	84	1,170
기술신용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11,031	1,587	-	12,380	24,99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279	35	-	33	2,347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2,348	49	1,924	893	15,21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1,785	612	6,000	6,737	15,13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4,454	468	-	3,605	28,52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Fishing Houses)	988	0.01	-	27	1,01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230	7	-	1,568	1,80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1,641	76	-	3,303	5,020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0,125	643	2,500	156	13,424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8,517	129	176	414	9,236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8,488	1,094	-	21,490	31,072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1,522	125	145	4,289	6,081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1,051	2	22	345	1,42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971	17	8,500	15,795	25,284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7,824	33	1,800	1,816	11,47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825	1	-	90	915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계 Total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1,225	12	303	5,239	6,779
복권기금 (Lottery Fund)	24,620	9	17,272	2,924	44,8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he Korea Teacher's Pension Fund)	40,211	833	-	64,192	105,236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2,243	49	1,406	1,197	4,89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181	106	-	3,082	3,368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997	12	400	623	2,03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46,786	3,060	3,000	66,443	119,289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119	17	-	310	44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19,778	261	1,084	-	21,124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858	15	75	2,487	8,43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 Independence Fighters)	175	1	-	480	656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3,934	3,143	-	28,666	55,742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6,911	123	7,034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33	4	-	176	413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1,760	0.1	59	86	1,90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oungsan and Sumjin River)	815	14	-	123	952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788	100	300	2,302	3,490

단위 : 억원(In Hundred Million KRW)

기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Korea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payment Fund)	1,006	81	52,725	14,542	68,354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	7	255,763	409,804	665,57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1,937	38	-	591	2,566
응급의료기금 (Substitute Payment Fund for Emergency Medical Cost)	2,292	1	-	130	2,423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2,968	103	1,500	7,753	12,32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TA Support Fund)	6,242	35	-	747	7,0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2,071	510	7	3,943	6,531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Fund)	16,737	84	9,000	12,245	38,066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6,546	205	2,500	1,178	10,43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3,718	684	-	35,937	40,33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32,898	943	38,693	-	72,535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95	6	-	26	128
청소년육성기금 (Youth Supporting Fund)	864	0.4	17	212	1,094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10,390	33	56	1,019	11,498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361	83	-	636	5,079

[www.mosf.go.kr](http://www.mosf.go.kr)

2 0 1 5 년 도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5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권준호	예산관리과 과장	종합 편집
김대은	예산관리과 사무관	"
조태홍	예산관리과 사무관	"
문성희	예산관리과 사무관	"
유인웅	예산관리과 사무관	"
차승원	예산관리과 주무관	"
김효정	예산관리과 에디터	"
임기근	예산총괄과 과장	제3부 중 2013년도 예산, 예산통계
강경구	예산총괄과 서기관	"
주병욱	예산총괄과 주무관	제3부 중 예산통계
김윤상	예산정책과 과장	제2부 중 재정운용 여건, 세입규모, 지출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14년도 자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김도영	예산정책과 사무관	"
서진호	예산정책과 사무관	"
류재현	예산정책과 사무관	"
배지철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제3부 중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 통계
서영환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송성일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제3부 중 기금통계
전형식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제2부 중 R&D 분야
권기정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성 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류광준	산업정보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이민호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유병서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제2부 중 SOC분야
임혜영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이종화	농림해양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성원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김동일	복지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보건·복지 분야
박철건	복지예산과 서기관	"
황순관	고용환경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일자리 분야, 환경 분야
오지훈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일자리 분야
정석철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환경 분야
박춘호	교육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교육 분야
진민규	교육예산과 사무관	"
장문선	문화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희철	문화예산과 사무관	"
정희갑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국방 분야
신대원	국방예산과 사무관	"
조용범	행정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외교·통일 분야
박현창	행정예산과 사무관	"
송복철	법사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공공질서·안전 분야
김용승	법사예산과 사무관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02 - 734 - 6818(매장) 또는 02 - 394 - 0337(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  
발 행 처 기획재정부  
발 행 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발 행 일 2015년 2월  
연 락 처 Tel. 044-215-7191  
Fax. 044-215-8041

---

값 : 14,000원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